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 사 학 위 논 문

로코코 시대 헤어스타일의 조형적 특성을
응용한 현대 업스타일 디자인 연구

2013년



HANSUNG
UNIVERSITY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헤어디자인전공

이 나 경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이향숙

로코코 시대 헤어스타일의 조형적 특성을
응용한 현대 업스타일 디자인 연구

A Study on the Modern Up-Style Design
Applying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Hair Styles
in the Rococo Period

2012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헤어디자인전공

이 나 경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이향숙

로코코 시대 헤어스타일의 조형적 특성을
응용한 현대 업스타일 디자인 연구

A Study on the Modern Up-Style Design
Applying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Hair Styles
in the Rococo Period

위 논문을 예술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헤어디자인전공

이 나 경

이나경의 예술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로코코 시대 헤어스타일의 조형적 특성을 응용한 현대 업스타일 디자인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헤어디자인전공

이 나 경

본 논문은 18세기 유럽 문화에 영향을 미쳤던 프랑스 로코코 양식에 대해 알아보고 로코코 시대 여성들의 미의식과 헤어스타일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 및 헤어 패션이 자리 잡게 된 역사적 배경과 근원에 관해 연구하여 현대적인 업스타일로 재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치장을 중요시 하는 로코코 시대의 미용문화는 무엇보다도 유행과 걸치레를 중요시 여기는 현대 여성들과 유사한 부분이 보였으며 가장 화려했던 헤어스타일이 유행한 로코코 시대는 헤어디자이너들에게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새로운 유행의 좋은 모티프가 된다고 생각하여 본 연구자는 중세유럽 중 가장 화려했던 로코코 시대를 선정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관련된 국내외 문헌 및 선행 논문,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하여 18세기 프랑스의 사회 문화적 배경 및 로코코 예술 양식을 알아보고 로코코 시대에서 보여 지는 건축, 회화, 패션 및 헤어스타일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연구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고 로코코 시대의 미용문화 중에서 가장 유행을 하였던 왕의 애첩과 왕비의 헤어스타일인 풍탕주, 풍파두르, 뒤바리, 마리 앙투아네트 스타일로 알려져 있는 푸프 스타일을 선정하여 각각의

조형적 특징을 도출하고 이를 응용하여 현대적인 헤어 업스타일로 재창조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18세기 전 유럽에 커다란 파장을 부른 로코코 양식의 시작인 프랑스를 집중 연구하며 그 기간은 태양왕 루이 14세가 서거한 시기(1715)부터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74년의 기간을 범위로 정하였다.

이 시기의 복식은 여성복식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관심은 옷보다 헤어스타일에 더 흥미를 가짐으로써 헤어스타일을 예술적이고 환상적으로 만들며 전문 미용사의 배출을 유도하였으며 전문 미용사가 출현하게 됨으로써 헤어스타일은 더욱 화려하고 다양한 형태의 과장되고 확장된 조형으로 전개되었다.

다양한 머리 모양과 로코코 양식이 나타난 18세기의 헤어스타일은 미술, 건축과 함께 예술작품으로서 이전 어느 시대에서도 볼 수 없는 독립된 문화로써 헤어 패션의 전환점이 되었다.

로코코 시대 헤어스타일을 조형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갖고 현대적인 업스타일 기법으로 재현한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풍탕주 스타일은 리본이나 레이스로 머리를 묶고 앞에서 매듭을 지어 백색 마 또는 레이스에 풀을 뿔뿔이 먹여 반점은 부채모양으로 주름을 잡아 두세층의 탑처럼 세우고 철사로 틀을 만들어 이마에서 앞쪽으로 기울게 받친 후 리본, 다이아몬드, 진주, 깃털 등으로 장식하였다.

둘째, 풍파두르 스타일은 깔끔하고 단정한 스타일로서 머리카락을 부풀리지 않고 뒤로 빗어 넘겨 하나로 묶은 뒤 쪽지는 것처럼 안으로 말아 넣어 목덜미를 노출시킨 우아하고도 깔끔한 머리형으로 때로는 머리 위에 조화나 다이아몬드, 진주 등의 보석을 박은 리본이나 금이나 은으로 만든 머리핀, 레이스 캡, 깃털 등의 화려한 장식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셋째, 뒤바리 스타일은 정면의 머리를 이어 포인트에서 이어 포인트로 나누어 구분해서 느슨한 킨로 작은 패드나 쿠션을 주어 그 위에 흘러내리게끔 하고 후두부에는 여러 개의 킨을 만들어 리본으로 묶었다.

넷째, 푸프 스타일은 킨을 많이 말아서 머리전체를 웨이브로 부풀려

파우더를 뿌린 큰 머리 형태를 말하며 독창적인 것을 추구했다.

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대적인 모티프에 접목시켜 현대적인 업스타일로 작품을 제작하였다. 그 결과 창의적인 트렌드 개발의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예술 장르에서 그 시대의 스타일을 재현함에 있어 그 시대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분석하여 더욱 세밀하고 정확한 표현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연구는 새로운 유행을 창조하는 데에 있어 좋은 모티프가 된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주요어】 로코코, 18세기, 업스타일, 풍당주, 풍과두르, 뒤바리, 푸프



목 차

제 1 장 이론적 배경	1
제 1 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제 2 절 연구방법 및 범위	3
제 2 장 이론적 배경	4
제 1 절 18세기 프랑스의 사회적 배경	4
제 2 절 18세기 프랑스의 문화적 배경	8
제 3 절 로코코 양식의 특징	9
1. 로코코의 어원	9
2. 로코코 양식의 회화	10
3. 로코코 양식의 건축 및 실내장식	13
제 3 장 로코코 양식의 미용문화	18
제 1 절 로코코 양식의 헤어	18
1. 여성의 헤어스타일	18
2. 남성의 헤어스타일	25
제 2 절 로코코 양식의 메이크업	29
제 3 절 로코코 양식의 복식	32
1. 여성 복식	32
2. 남성 복식	40

제 4 장 작품분석 43

제 1 절 로코코 양식의 헤어스타일	43
1. 풍탕주 스타일	43
2. 풍파두르 스타일	43
3. 뒤바리 스타일	44
4. 푸프 스타일	44

제 5 장 작품제작 45

제 1 절 포커페이스(Poker face)	45
1. 작품 의도	45
2. 일러스트	46
3. 제작과정	47
4. 완성작품	48
제 2 절 데메테르(Demeter)	49
1. 작품 의도	49
2. 일러스트	50
3. 제작과정	51
4. 완성작품	52
제 3 절 팜므파탈(Femme fatale)	53
1. 작품 의도	53
2. 일러스트	54
3. 제작과정	55
4. 완성작품	56
제 4 절 여왕(Queen)	57
1. 작품 의도	57
2. 일러스트	58
3. 제작과정	59

4. 완성작품	60
제 6 장 결 론	61
【참고문헌】	63
ABSTRACT	67



【 표 목 차 】

[표 2-1] 18세기 프랑스의 역사 연표	7
[표 5-1] 포커 페이스(Poker face)	47
[표 5-2] 데메테르(Demeter) 블로킹	51
[표 5-3] 팜므파탈(Femme fatale)	55
[표 5-4] 여왕(Queen) 블로킹	59



【 그림 목 차 】

<그림 2-1> 키테라섬으로의 출항	11
<그림 2-2> 사랑의 게임	11
<그림 2-3> 일몰	11
<그림 2-4> 비너스의 몸단장	11
<그림 2-5> 그네	12
<그림 2-6> 추억	12
<그림 2-7> 호텔 수비즈	15
<그림 2-8> 상수시 궁전	15
<그림 2-9> 거울의 방	15
<그림 2-10> 왕비의 침실	15
<그림 2-11> 로코코 양식의 가구	16
<그림 2-12> 시누아즈리	16
<그림 2-13> 로코코 양식의 도자기	16
<그림 3-1> 풍탕주	20
<그림 3-2> 풍파두르	21
<그림 3-3> 뒤바리	22
<그림 3-4> 푸프	23
<그림 3-5> 폴버텀 위그	26
<그림 3-6> 카도간 위그	26
<그림 3-7> 백위그	27
<그림 3-8> 라밀리 위그	27
<그림 3-9> 보브 위그	28
<그림 3-10> 어리서	28
<그림 3-11> 슈미즈	33
<그림 3-12> 코르셋	33
<그림 3-13> 스토머커	34
<그림 3-14> 파니에	34

<그림 3-15> 와토가운	35
<그림 3-16> 로브 아 라 프랑세즈	36
<그림 3-17> 로브 아 라 폴로네즈	37
<그림 3-18> 로브 아 라 시르카시엔	37
<그림 3-19> 로브 아 라 랑글레즈	38
<그림 3-20> 슈미즈 아 라 렌느	38
<그림 3-21> 자보	40
<그림 3-22> 베스트	40
<그림 3-23> 켈로트	41
<그림 3-24> 쥐스토코르	41
<그림 3-25> 아비 아 라 프랑세즈	42
<그림 3-26> 르댕고트	42
<그림 5-1> 포커페이스 모티프 1	45
<그림 5-2> 포커페이스 모티프 2	45
<그림 5-3> 포커페이스(Poker face) 일러스트	46
<그림 5-4> 포커페이스(Poker face) 완성작품 전, 후, 좌, 우	48
<그림 5-5> 데메테르 모티프 1	49
<그림 5-6> 데메테르 모티프 2	49
<그림 5-7> 데메테르(Demeter) 일러스트	50
<그림 5-8> 데메테르(Demeter) 완성작품 전, 후, 좌, 우	52
<그림 5-9> 팜프파탈 모티프 1	53
<그림 5-10> 팜프파탈 모티프 2	53
<그림 5-11> 팜프파탈(Femme fatale) 일러스트	54
<그림 5-12> 팜프파탈(Femme fatale) 완성작품 전, 후, 좌, 우	56
<그림 5-13> 여왕 모티프 1	57
<그림 5-14> 여왕 모티프 2	57
<그림 5-15> 여왕(Queen) 일러스트	58
<그림 5-16> 여왕(Queen) 완성작품 전, 후, 좌, 우	60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현대사회에서 아름다움이란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무언의 수단이다. 또한 신체에 있어서 헤어란 자신의 이미지 표현의 표현방법이며 인간의 지위와 계급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민족과 풍토, 그 시대의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어떠한 예술이던지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풍조에 의해 결정되며 사회 문화와 역사적 배경 등을 배제하고는 예술을 논할 수 없다. 인류와 함께 시작된 미용 예술 또한 그 시대의 사회 문화적 영향을 받으며 시대를 거치는 동안 무수히 많은 스타일로 변화 발전되어 왔다. 그 기준이나 이상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풍조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경향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현대 사회에서 미를 가꾸는 미용의 개념에서 기인하여 미용문화로 탄생하게 되었다.¹⁾

로코코 시대의 사람들은 조각, 건축, 회화, 음악, 의상 등에서 시각적인 것을 특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전쟁으로 피폐했던 루이 14세(Louis XIV) 시대와는 달리 평화롭고 경제적으로도 호조를 보였던 이 시기에는 생활 취미의 풍요로움만이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 로코코 문화는 우아, 세련 귀족적 이었고 이와 함께 중시 된 것이 바로 “사는 기쁨”이었다. 이런 시대 환경 속에서 패션은 “인간을 정교한 예술품으로 승화시켰다.”라고 한 복식사가 한센의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새로운 번성기를 맞이하고 있었다.²⁾

18세기 문화와 예술이 유독 우아하고 화려하면서도 사치스러워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처럼 사회 곳곳에서 일어난 “아름다운 것에 대한 추구”때문이었다. 이 시기는 경쾌하며 가볍고, 세련미가 넘치는 문화를 탐미하던 시기였으며, 바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미의 기준에 적합한 삶을 살아가

1) 이유나(2007), 「18세기 로코코시대의 미용문화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1.

2) 허준(2004), 『그 패션의 향기, 프랑스 명화』, 고양 : 유림문화사, pp.49~50.

고자 하였던 사람들의 열망이 가득했던 시기였다.³⁾ 왕과 귀족들은 사회적 지위와 문화적 열망을 과시하기 위해 자신의 외모를 꾸몄다. 그들은 자신의 성격과 격식을 차려야 하는 정도에 따라 머리 모양과 옷, 장신구를 달리하며 마치 자신이 예술작품인 양 몸단장을 했다. 이 시기의 복식은 여성복식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관심은 옷보다 헤어스타일에 더 흥미를 가짐으로써 헤어스타일을 예술적이고 환상적으로 만들며 전문 미용사의 배출을 유도하였으며 전문 미용사가 출현하게 됨으로써 헤어스타일은 더욱 화려하고 다양한 형태의 과장되고 확장된 조형으로 전개되었다. 다양한 머리 모양과 로코코 양식이 나타난 18세기의 헤어스타일은 미술, 건축과 함께 예술작품으로서 이전 어느 시대에서도 볼 수 없는 독립된 문화로써 헤어 패션의 전환점이 되었으며, 유럽전역에 파리(Paris)의 미용은 문화적으로 영향을 주었고 더불어 프랑스의 남녀미용사들은 유럽전역을 넘나들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동·서양 구별이 사라지고 점차 가치관을 공유하는 하나의 세계문화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과거가 없는 현재가 없듯이 옛 문화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연구하여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 내고 재해석 되거나 재현되는 과정을 거쳐 하나의 새로운 스타일로 표현되고 있다. 치장을 중요시 하는 로코코 시대의 미용문화는 무엇보다도 유행과 걸치레를 중요시 여기는 현대 여성들과 유사한 부분이 보였으며 가장 화려했던 헤어스타일이 유행한 로코코 시대는 헤어디자이너들에게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새로운 유행의 좋은 모티프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18세기 유럽 문화에 영향을 미쳤던 프랑스 로코코 양식에 대해 알아보고 로코코 시대 여성들의 미의식과 헤어스타일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 및 헤어 패션이 자리 잡게 된 역사적 배경과 근원에 관해 연구하여 현대 미용문화의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며 또한 이러한 연구는 로코코 시대의 미용문화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작품을 제작함으로써 미용디자인 창작영역에 기초자료가 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국립중앙박물관(2011), 『바로크 로코코 시대의 궁정문화』, 서울 : 국립중앙박물관, p.202.

제 2 절 연구 방법 및 범위

유행이 변화하는 데에는 사회적요인, 심리적요인, 경제적요인 그리고 발단이 될 만한 사건이 계기가 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유럽문화의 중심이었던 프랑스를 중심으로 18세기 로코코 양식이 나타나게 된 사회 문화적 배경과 미용문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이를 바탕으로 전 유럽을 지배하던 프랑스의 사회 문화적 배경과 화려한 의상과 거대한 머리모양이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헤어 패션의 양상의 변화를 고찰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관련된 국내외 문헌 및 선행 논문,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하여 18세기 프랑스의 사회 문화적 배경 및 로코코 예술 양식을 알아보고 로코코 시대에서 보여 지는 건축, 회화, 패션 및 헤어스타일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연구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고 현대적인 헤어 업스타일로 재창조하고자 한다. 그 시대의 회화나 인물화는 그 당시의 헤어, 메이크업, 복식 스타일을 잘 보여주므로 18세기 미용문화에 나타난 로코코 양식에 관한 연구는 관련 서적 및 회화를 중심으로 연구하여 그 자료를 토대로 이 시기에 유행 되었던 헤어스타일을 조사하고 그 중 로코코 시대에 가장 돋보였던 헤어스타일의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여 그 근거를 토대로 가발을 이용하여 현대적인 업스타일로 재창조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로코코 시대 미용문화에 대한 예술적 감성과 헤어스타일의 변화에 대해 집중 분석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로코코의 어원을 정리하고 로코코 시대의 시대적 배경 및 대표적인 문화, 패션, 헤어스타일을 문헌을 통하여 알아본다.

둘째, 로코코 시대의 헤어스타일을 살펴본 뒤 대표적으로 유행했던 4가지 스타일의 조형적 특성을 도출하여 비교 분석 한다.

셋째, 위에서 도출한 로코코 시대 헤어스타일의 조형적 특성을 작품 접근 방식 틀로 활용하여 현대적인 헤어 업스타일로 재창조 한다.

본 논문에서는 18세기 전 유럽에 커다란 파장을 부른 로코코 양식의 시작인 프랑스를 집중 연구하며 그 기간은 태양왕 루이 14세가 서거한 시기(1715)부터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74년의 기간을 범위로 정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18세기 프랑스의 사회적 배경

16세기로부터 18세기에 걸친 시기는 절대왕정 혹은 절대주의 시대이다. 이 시기에는 봉건 사회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었으나 유럽 근대 사회의 토대가 갖춰진 시기였다.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근대 국가의 체제가 갖추어져 초기 자본주의가 발전했고, 근대 문화가 시민층의 성장과 더불어 확립⁴⁾됐다.

역사학적으로 18세기를 루이 14세의 절대 왕정기, 오를레앙 공의 섭정기, 루이 15세(Louis XV)의 친정기, 루이 16세(Louis XVI)의 통치기인 4기로 구분한다.⁵⁾ 그러나 진정한 로코코 시대는 루이 14세가 서거한 이래(1715)부터 프랑스 대혁명(1789)이 일어나기 전까지 74년간의 기간으로 이는 초기, 중기, 말기 세 시기로 구분한다.

로코코 초기로는 필립 오를레앙공(Phillippe d' Orléans, 재위 1715~1723)의 섭정시대를 일컫는다. 중기로서는 루이 15세의 친정시대(1723~1774년)를 말하며 말기로서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기 전 인 루이 16세(1774~1789년) 때로 구분한다.

루이 14세 재위 후반기의 엄격했던 시기가 지나가자 사회의 윤리 의식은 해이해졌다. 1715년 루이 14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증손자인 루이 15세는 5살이었다. 조카인 오를레앙공이 섭정이 되어 실권을 장악했다. 섭정을 맡은 오를레앙 공작 필리프는 루이 14세의 동생과 팔라티나 공주 사이의 아들로 41세의 나이였다. 필립 오를레앙 공의 섭정 기간은 1715년부터 1723년까지 8년뿐이었지만 이 시기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변화는 몇 십 년에 걸쳐 일어난 것과 맞먹는 엄청난 것이었다.⁶⁾

4) 문명식(2011), 『유럽역사의 이해』, 서울 : 신아사, p.64.

5) 남정화(2009), 「로코코시대 여성복식을 이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8.

6) 이지은(2006), 『귀족의 은밀한 사생활』, 서울 : 지안, p.141.

루이 14세 사후에 베르사유 궁전은 해체되었고 파리의 퐁르리 궁으로 복귀하였고, 그로 인해 많은 저택이 파리에 세워졌고 지방에는 성이 건축되었다. 당시 파리에는 부를 축적한 재력 있는 부르주아들이 많았다. 타고난 신분 때문에 궁정사회에는 끼지 못했던 그들은 이제 엄격한 예의 규범이 완화되고 궁정이 파리로 복귀함에 따라 귀족 사회에 영향력 있는 위치를 굳혀갔다. 그들은 미술후원자로 그들의 위세를 과시했다. 이완되고 향락적인 섭정기의 사회분위기 속에서 예술은 이들 부유한 부르주아들의 취향을 반영하게 되었다.⁷⁾

이제 사람들은 개인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살고자 한다. "삶의 기쁨"이 추구되기 시작한 것이다. 직접적으로 개인을 둘러싸는 의상, 장식품, 웅장한 궁정이 아니라 난방이 잘 되는 아담한 거실과 차그마한 가구 등에서 연상되는 생활이 소소한 즐거움이 중시되어 진다.⁸⁾ 이러한 분위기는 형식적이고 엄격한 규칙에 얽매어 있던 바로크 왕실에서 벗어나 감성적이고 쾌락을 추구하는 문화로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루이 15세(1723~1774.10)는 정치에 애첩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임하여 왕의 권위가 실추되기도 했다. 특히 마담 퐁파두르(Madame de Pompadour, 1721~1764)⁹⁾부인에 의해 프랑스 정치와 궁정의 대소사가 좌우되었으며, 그녀는 계몽 사상가 들을 후원하였고 정부 고관의 임명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¹⁰⁾

루이 15세의 치세기는 인구증가로 많은 도시들이 팽창하고 경제가 성장했다. 흉작, 혹심한 추위, 기근과 연관된 초과 사망률의 위기도 눈에 띄게 후퇴했다. 날씨가 다시 온화해지는 경향을 보였고, 기후로 말미암은 재난은

7) 이은주(2008), 『프랑스 문학과 미술』, 서울 : 만남, p.214.

8) 허준, 전개서, p.43.

9) 퐁파두르(Pompadour) : 1745년부터 1764년 사망할 때까지 루이 15세의 공식 정부였던 퐁파두르 후작부인 잔 앙투아네트 푸아송(1721~1764). 부르주아 출신으로서는 최초로 국왕의 정부가 되어 오랫동안 최고의 지위를 누렸다. 루이 15세의 정부로서 그녀는 궁정 후원, 국내·해외 정책 등 왕실 정책의 모든 면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까닭에 비난을 많이 받기도 했다. 예술의 후원자로서 그리고 열정적인 사치품 컬렉터로서 후작부인의 역할은 프랑스 궁정의 전반적인 취향에 영향을 미쳤다. (국립중앙박물관, 전개서, p.40.)

10) 김시아(2010), 「로코코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의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p.4.

점차 줄어들었다.¹¹⁾

18세기의 루이15세와 루이16세의 치세기에 농산물 가격이 평균 60-90 퍼센트, 수공업 및 산업제품의 가격이 20-40 퍼센트, 소작료가 80-90 퍼센트 올랐다. 물가의 전반적인 상승이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했다.

1774년 루이 15세가 천연두에 걸려 사망 후 그의 손자인 루이 16세는 20세에 왕위에 올랐다. 그리 똑똑한 편은 아니었지만 튀르고(Turgot), 네케르(Necker), 칼론(Calonne) 등을 재상으로 등용하여 귀족에게도 부역을 부과하고자 하였으나¹²⁾ 루이 16세는 봉건 시대의 권리를 되찾고자 하는 귀족들의 압력에 굴복하고 말았다. 부르주아들은 활발한 경제 활동을 통해 부유해졌고 그들이 소외된 특권과 기존의 질서를 비판하고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며 변화를 원했다.¹³⁾

18세기에는 제반 학문과 과학의 발달에 역점을 두면서 인간의 행복을 추구했다. 18세기에 등장한 계몽사상은 인간을 초월하는 존재인 절대적인 신을 부정하고, 국왕과 교회의 절대권을 부정했으며 국민들의 자유와 평등을 주장했다. 18세기 프랑스는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전염병의 유행과 같은 천재지변도 없어 비교적 평화로운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의 시대였다. 반면 주변 국가들과의 잦은 전쟁에 의해 국가 재정이 악화되어 갔다. 특히 7년 전쟁 후에는 식민지를 잃고 국제적 지위에 손상을 입었다. 18세기 초에 발전하던 경제도 70년대에 들어와 일기불순으로 인한 기근에 의해 정체 국면으로 접어들고 경제 위기가 심각해져갔다. 74년에 즉위한 루이 16세는 경제학자 튀르고와 스위스 은행가 네케르를 등탁하여 국가 재정을 회복시키려고 시도하지만 귀족층의 반발로 인해 수포로 돌아갔고 결국 삼부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려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구제도(Ancien Régime)¹⁴⁾에 대한 불만으로 연결되어

11) 최갑수(1998), 『그림으로 보는 프랑스의 역사』, 서울 : 까치글방, p.233.

12) 이지현(2006), 「로코코 시대의 장식요소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한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

13) 이은주, 전계서, p.215.

14) 앙시앵 레짐(Ancien Régime) : 구체제라고도 함. 프랑스 혁명의 타도 대상이었던 이전의 체제. 특히 18세기 브르봉왕가 통치 아래에서 행해진 모든 특권적인 제도를 말하나 일반적으로는 브루주아 혁명 이전의 구체제를 통칭하기도 한다. 때로는 혁명에 의해 탄생한 새로운 체제와 비교해 이전 제도의 낡은 특징을 일컫는 말로도 쓰인다. (이희재 (1998), 『슈테판의 시간여행 5』, 서울 : 끌리오, p.266.)

혁명의 발단이 되어버렸다.

18세기는 루이 14세의 절대 왕정에 이어지는 반동의 시기이다. 엄격한 종교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지상에서의 행복 추구를 중시하는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변화의 중심에 계몽 사상가들이 있었다. 진보적인 지식인들인 사상가들은 정치와 종교의 절대적 권력을 비판하며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고자 했다.¹⁵⁾

[표 2-1] 18세기 프랑스의 역사 연표

시 대	연 대	상 황	특 징
초 기 (1715~1723)	1715년	루이 14세 서거	윤리의식이 해이해짐
	1715년	필립 오를레앙공 재위	베르사유 궁 해체
		텔르리 공으로 복귀	파리에 많은 성이 건축 됨
중 기 (1723~1774)	1723년	루이 15세 즉위	인구증가 및 경제 성장
	1740년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1748년까지)	국가재정의 악화 및 오스트리아에 대한 시민들의 적대적 감정
	1745년	마담 드 폰 파두르를 왕의 정부로 인정	부르주아 출신으로 최초의 국왕의 정부
	1751년	「백과전서」 간행	프랑스 혁명 발단에 사상적 기초
	1756년	7년 전쟁(~1763년까지)	많은 식민지를 잃음
	1770년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의 결혼	오스트리아와의 동맹
말 기 (1774~1789)	1774년	루이 15세 천연두에 걸려 사망, 루이 16세 즉위	일기불순에 기인한 흉작에 의해 경제상황 악화
	1788년	삼부회 소집	구제도에 대한 불만으로 연결되어 혁명의 발단
	1789년	프랑스 혁명(~1795년까지)	봉건제도 폐지

15) 이은주, 전제서, p.213.

제 2 절 18세기 프랑스의 문화적 배경

이 시대의 가장 특징적인 문화 양식은 살롱에서 비롯되었다. 원래 살롱이란 말은 둥근 방에 천장이 돔 형태로 된 공간을 가리키는 건축용어였지만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사교적 의미가 추가되었다. 궁정의 세력이 약화되고 통제력을 상실함에 따라 궁정은 이미 문학과 사교계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상실했으며 그 자리를 살롱과 카페, 클럽이 대신했으며 날로 번창하게 되었다.

18세기의 살롱은 사교계의 중심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계몽사상의 온상이었다. 또한 출판물이 간행되기 전에 살롱에서 발표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살롱은 당시 유럽 사상과 직접 소통하고 접촉하는 무대¹⁶⁾였으며 인쇄할 수 없는 비판적인 사상을 알리는 장소가 되기도 했다.

살롱문화는 주로 개인 저택에서 문인, 학자, 사상가 등이 사회, 과학, 철학, 경제, 종교 등을 주제로 기지 있는 토론을 하는 사교적 집회로 여성이 주재하는 살롱은 루이 15세의 친정기에 시작되었는데, 왕의 애첩, 귀부인 또는 여인들이 자신들이 꾸민 호화로운 응접실에 상류층 인사들을 초빙하여 파티를 열었다.¹⁷⁾ 살롱에서 여주인은 약간의 현학적 취미를 가지고서 모임을 주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한 모임의 모범이 17세기 말에 시작되어 1710년부터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던 랑베르 후작부인의 살롱이었다. 드 탕생 부인과 조프랭 부인은 그 모임을 성공적으로 모방했으며 그들의 모임은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졌다. 1750년 이후에 살롱의 모임은 정치적이 되었다. 레스피나양의 살롱과 네케르 부인의 살롱이 그러했다.¹⁸⁾ 약간의 여가와 충분한 수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휘황찬란한 리셉션과 조용조용한 밀담을 즐길 수 있어 호시절을 맞이했다. 왕족과 귀족의 무리한 향락과 사치스러운 행각은 서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했으나 궁정과 살롱을 중심으로 널리 퍼지면서 로코코시대의 쾌락적인 분위기를 더했다.¹⁹⁾

16) 이복남(2009), 『프랑스 시의 이해』, 서울 : 엠애드, p.144.

17) 오광수(1996), 『이야기 서양미술 서양미술이야기』, 서울 : 정우사, p.185.

18) 김현일(1995), 『프랑스 문명사 下』, 서울 : 까치, p.551.

제 3 절 로코코 양식의 특징

1. 로코코의 어원

로코코라는 명칭은 자갈을 의미하는 로카이유(rocaille)와 조개껍데기를 가리키는 코키유(coquille)라는 두 단어에서 유래되었다. 즉 조가비나 조약돌의 곡선을 사용해서 화려하게 장식하는 예술 양식을 가리키며 로코코 양식은 위대한 예술이 아니라 친밀한 삶의 영역을 치장하는 예술로 실내장식에서 두드러진다.

로코코 양식은 프랑스에서 1720년대에 처음으로 나타나 1730년대와 40년대에 유럽전역으로 확산되었으며 건축, 실내 장식, 가구, 그림, 조각, 음악 등에 영향을 미쳤으며 직물의 문양이나 복식에도 적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점차 그 의미가 확대되어 오늘날에 와서는 회화나 건축을 포함한 프랑스 혁명 전 18세기 유럽 미술 양식을 지칭하게 되었으며, 넓게는 동시대의 문화나 풍조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로코코 양식은 회화, 실내장식, 조각, 건축, 공예, 음악, 의상 등 모든 분야에서 사랑스런 곡선과 파스텔 색조를 사용²⁰⁾하여 운동감과 화려함, 착시효과를 더욱 발전시켰으며 경쾌함과 우아함, 환상을 불러일으키는데 주목하며 시각적인 것을 특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또한 바로크의 무겁고 화려하며 장중한 형식이 가볍고 장식적이며 투명한 것으로 바뀌었다. 바로크가 남성적, 의지적인 반면 로코코는 세련되고 경쾌하며 귀족적으로 우아하고 여성적인 성격이 특징이다.²¹⁾

로코코 양식은 절대주의 말기에 나타난 사조로 억압되었던 루이 14세 왕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분위기가 조성되며 현실과 동떨어진 채 아름다운 착각 속에서 예술이 자기만족, 쾌락, 우아함, 유쾌함을 대변하려는 열망이 가득했다.

19) 남정화, 전제논문, p.13.

20) 신부섭(2006), 「로코코시대 헤어스타일의 조형적 특성분석을 통한 업스타일 기법의 재현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

21) 김정(2002), 「로코코시대 여성복식의 구성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0.

2. 로코코의 회화

18세기에 이르러 미술은 이념이나 종교로부터 자유로워졌다. 회화는 이제 종교적 신앙과 무관한 인생의 행복과 기쁨을 화려한 색채로 묘사하고 당시 통용되던 아카데미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다.²²⁾ 부를 축적한 부르주아층이 늘어남에 따라 18세기의 회화는 궁정적 예술에서 탈피해 대중적 예술이 되자²³⁾ 미술시장의 상황은 변화하였다. 개인 미술 수집가는 점점 더 많이 생겨났고, 늘어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미술품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미술품은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었다.²⁴⁾

대부분의 로코코 회화에서는 섬세하고 밝은 파스텔 톤의 색채가 돋보인다. 회화의 테마는 주로 목가적 풍경과 유흥을 특징으로 하는 즐거운 모티프들에 한정된다. 일부의 경우, 테마를 매우 장식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내용이 공허해지고 인위적으로 과장되기도 했다.²⁵⁾

로코코 회화의 대표적인 화가로는 앙투안 와토(Jean Antoine Watteau, 1684~1721), 프랑수아 부세(Francois Boucher, 1703~1770), 장 오노레 프라고나르(Jean-Honoré Fragonard, 1732~1806)등이 있다.

로코코의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한 예술가 중 하나인 장 앙투안 와토는 섬세하고 은유적인 묘사로 프랑스 회화사에서 가장 위대한 채색화가였다(<질>, <키테라 섬으로의 출항>). 그는 로코코 회화 특유의 우아하고도 관능적인 테마와 정서를 확립했다.

1710년부터 애정과 유흥을 즐기는 무리를 소재로 삼는 새로운 회화 분야를 개척함으로써, 이전의 고전적인 전통주의가 중시하던 엄격함과 기념비적 성향에서 벗어나 로코코 고유의 경쾌함과 우아함, 세련미를 한껏 발휘했다. 이러한 독특한 소재의 채택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한 와토는 1717년에는 ‘페트 갈랑트²⁶⁾ 화원’으로 왕립 미술원의 정식 화가가 되었다.²⁷⁾

22) 이은주, 전제서, p.247.

23) 조정문(2006), 「로코코시대 여성복식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0.

24) 김미정(1998), 『바로크와 로코코』, 서울 : 시공사, p.173.

25) 안상원(2008), 『어떻게 이해할까? 로코코』, 서울 : 미술문화, p.90.



<그림 2-1> 앙투안 와토
'키테라섬으로의 출항' 1717



<그림 2-2> 앙투안 와토
'사랑의 게임' 1717

18세기 초 우아한 사교계의 향연을 한 점의 그림자도 없는 빛나는 색채로 화폭에 담았던 와토의 회화는 새로운 세기의 막을 열었으며 그에 이어 부세는 에로티시즘적인 분위기를 부가했다.



<그림 2-3> 프랑수아 부세
'일몰' 1752



<그림 2-4> 프랑수아 부세
'비너스의 몸단장' 1751

26) 페트 갈랑트(Fate galantes) : '우아한 연회'라 하여 근심 없어 보이는 주제들, 즉 귀족들의 연회, 춤, 구애, 정원의 오락, 가면무도회, 연극적인 여흥, 관능적 놀이 등을 다루며, 일반적으로 주인공들을 작게 표현한 화풍이다.(서현주, 이화진(2007), 『천년의 그림 여행』, 서울 : 예경, p.201.)

27) 노윤희(2010), 『극적인 역동성과 우아한 세련미』, 파주 : 마로니에북스, p.14.

부세는 '신흥부자(부르주아)'들과 자유주의적 궁정인사들에게 가장 환영받은 에로틱한 장르의 대가이며 로코코 회화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연애신화의 창조자²⁸⁾이며 루에 15세의 정부였던 퐁파두르 부인의 총애를 받았다(<퐁파두르 후작부인의 초상>, <일몰>).

부세의 제자인 프라고나르는 채색과 소묘에서의 테크닉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소재의 스캔들적 요소로도 유명하다. 그의 작품은 능수능란한 솜씨로 완성되었으며, 곳곳에는 즉흥적인 감각이 깃들여져 있다²⁹⁾(<그네>).



<그림 2-5> 장 오노레 프라고나르
'그네' 1767



<그림 2-6> 장 오노레 프라고나르
'추억' 1776-1778

바로크는 왕실의 예술이었던 반면 로코코는 귀족과 부르주아의 예술이다. 루이 14세 사후, 18세기 프랑스 사회의 귀족계급이 추구한 사치스럽고 우아한 성격 및 유희적이고 변덕스러운 매력을, 그러나 동시에 부드럽고, 내면적인 성격을 가진 사교계 예술로 육체적 쾌락, 우아함, 가벼운 사랑을 주제로 하는 회화는 여성적, 감각 주의적이고 섬세하다.

28) 김미연 외2명(2012), 『나도 프랑스 문화와 통하고 싶다』, 대전 : 궁미디어, p.173.

29) 조정미(2006), 「관능미를 주제로 한 도자조형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10.

3. 로코코 양식의 건축 및 실내장식

18세기 파리는 건축 및 미술 양식을 주도했던 도시이며 구 귀족의 허위 허식과 부르주아의 신흥 세력이 공존하고 있었다. 18세기 초 교양 있는 프랑스인들은 치세말기의 장엄하고 우울한 엄격함에 반발했고 장엄한 것보다 우아하고 세련된 것을 선호했다. 당시의 사치관념은 더 이상 대 건축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것은 오히려 내부설비와 가구로 향했다. 이제 건축도 안락한, 행복 추구의 공간을 창조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로코코 양식은 이탈리아인인 메소니에(Juste-Auréole Messonnier, 1663-1740)에 의해 완성되었다. 그는 규칙적이었던 장식에 있어서의 좌우 균형을 최초로 타파함으로써 좌우 불균형인 장식이라는 로코코 장식의 특징을 창출했다. 또한 벽면과 천장의 경계선을 구성으로 분명하게 구분 짓지 않고 호화로운 조각 장식을 입체적으로 전개하여 꾸불꾸불한 곡면에 의해서 벽면과 천정을 유기적으로 연결³⁰⁾했다. 내부 공간들은 장식과 시설물로 인하여 불가분의 통일체로 형상화되었으며, 특히 벽을 치장하는데 대단한 주의가 기울여졌다. 벽과 천장에는 목각이나 금박을 일부 입힌 석고로 이루어진 다양한 장식 구조가 전개 되어, 그것이 내부 공간 전체를 아우를 수 있었다.³¹⁾

로코코 양식의 건축은 장식적인 형태와 정교한 무늬가 지배적이었다. 로카이유 장식이 주를 이루었고, 그와 더불어 화환 장식, 나선무늬, 아라베스크 그리고 그와 서로 얹혀진 띠 모양이 자주 사용되었다. 로카이유는 로코코 장식의 주요 모티프로 발전했다. 로카이유는 돌림띠와 천장 같은 건축요소들을 장식했으며, 또한 면을 나누고 공간을 기하학적으로 구분하는 자리에도 자주 등장했다. 또한 꽃과 이파리 무늬를 극히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으며 이들은 상이한 공간 요소들의 연결 부분을 흐르듯 이어지게 했고 공간의 경계 부분을 거의 없애버렸다.

18세기 초반에 건축의 주요한 특징은 건물의 내부 장식과 방 배치에 있다.

30) 이은주, 전계서, p.297.

31) 안상원, 전계서, p.12.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내력벽의 분할이다. 방 배치는 내력벽 때문에 늘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각 방은 자율성을 지니게 되었다. 거처하는 공간을 각각의 사용목적에 따라 침실, 대기실, 거실, 내실, 서재 등으로 세분화시키기 시작하였다. 거대한 규모의 응접실은 점차 좀 더 작은 규모로 축소되거나 내실로 변화되었다. 또한 접견실은 1층에, 사적인 공간은 2층으로 분리하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 실내공간은 한편으로 자신의 취향을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무대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취미를 즐기는 장소이기도 했다. 각 방들은 여러 용도로 사용 되었으며 여기서 사람들은 오락을 즐기고, 음악을 연주하고, 도박을 하고, 춤을 추고, 책을 읽었다.

더 나아가 새로 건설되는 도시의 주택들은 기능에 따른 분화에 알맞은 매우 유연한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엄격함에서 벗어난 주택의 파사드에는 많은 창을 내었으며 각각의 층은 명료하게 구별 되었다. 외부의 형태는 실내의 로코코 양식과 대조를 이루는 고전주의를 아주 포기한 것은 아니었지만 형태는 더욱 우아해졌다.³²⁾

공공건축물의 차가운 재질과 장중한 색조 대신에 파스텔 색조 회색과 은빛, 녹회색과 장밋빛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로코코 건축은 살롱 문화의 전개의 장으로서 발달하였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건축내부 공간을 디자인하는 예술이며, 건축 외부의 의장에 있어서 로코코 양식의 특징은 내부의 공간형성에 있어서만큼 분명히 나타나지 않았다.³³⁾

사실 로코코라는 단어는 18세기 후반에 프랑스 가구 제조 기술자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된 용어로 루이 15세 시대의 가구가 지닌 구불구불한 형태나 뇌문(雷紋)형태의 장식을 일컫는 말이었다. 로코코 양식은 위대한 예술이 아니라 친밀한 삶의 영역을 치장하는 예술, 즉 실내 예술로서 여기서 로코코 양식의 진수를 찾을 수 있다.

루이 14세의 서거 후 베르사유 궁에서 툴리리 궁으로 복귀함에 따라 수많은 건물이 파리에 지어졌고, 이에 따라 가구에 대한 수요도 급증했다. 말투와 생활 습관까지도 예술적으로 우아한 것을 좋아하는 로코코 시대로 접어들면서 프랑스인들은 역사화만을 중요한 예술분야로 여기지 않았다.

32) 김미정, 전계서, p.176.

33) 이은주, 전계서, p.298.

도자기나 가구, 실내 벽화를 비롯하여 오페라나 연회의 무대 장식까지도 모두 아티스트의 손을 거쳐야 하는 영역이라 생각한 것이다.³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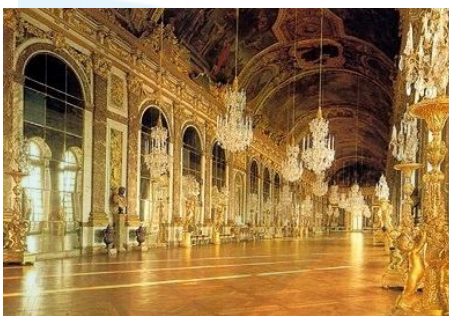
프랑스 실내장식에서 로코코 양식이 번성하는데 누구보다도 많은 기여를 한 사람은 건축가 제르맹 보프랑(Germain Boffrand, 1667-1754)이었다. 그는 로코코양식의 가장 좋은 예를 보여주는 파리의 호텔 수비즈(Hotel Soubise)의 실내장식을 설계하였다.



<그림 2-7> 호텔 수비즈



<그림 2-8> 상수시 궁전



<그림 2-9> 거울의 방



<그림 2-10> 왕비의 침실

루이15세 시기의 가구는 특히 서랍장과 벽 선반형의 콘솔에 로코코 양식의 구불구불하고 경쾌한 형태와 로카이유 문양을 사용하였고 파리의 장인들은 새로운 취향에 따라 가늘고 굽은 가구다리와 강렬한 색조 및 다양한 무늬를 가진 날염면포를 덮은 등받이를 제작했다. 1734년에 보베 태피스트리 제작소가 문을 열어 우드리(Jean-Baptiste Oudry, 1686~1755)의 감독을 받게 되었다. 이 공장에서는 춤춤하게 직조된 태피스트리가

34) 이지은, 전계서, p.266.

전문적으로 생산되었으며, 가능한 한 회화와 비슷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거의 만 이천여 종류에 이르는 색조의 실들이 사용되었다.



<그림 2-11> 로코코 양식의 가구

동양풍의 장식에 대한 애착은 17세기에 돌리 퍼져 있었지만 18세기에 이르러 로코코와 융합하여 ‘시누아즈리’라 불리며 유럽 전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다. 실내 및 정원 장식, 가구, 벽걸이, 도자기 등에 많이 이용되었다. 귀족들은 자기와 비단, 그림이 그려진 대형 부채 옷칠가구, 천이나 나무 소재의 병풍 등으로 주택의 실내를 장식했다.



<그림 2-12> 시누아즈리



<그림 2-13> 로코코 양식의 도자기

커다란 거울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요소가 실내 장식에 들어온 이래로 사람들은 특히 거울을 좋아했고, 따라서 거울이 비치되지 않은 방이 없게 되었다. 늘어진 덩굴무늬가 벽을 덮었고 거울이나 그림의 테두리를 장식했다.³⁵⁾

35) 이재원(2000), 『패션의 역사』, 서울 : 한길아트, p.48.

회화적인 표현을 위해 금테를 두른 패넬이나 채색 패넬 및 거울이 이전 시기의 웅장한 원주나 벽화를 대신하였다.

로코코 양식을 충실히 따랐던 분야는 바로 금은 세공이었다.³⁶⁾ 계단의 난간이나 발코니, 장식적인 문이나 울타리 제조를 위하여 많은 철물 기술자들이 필요하였으며 그들 가운데 낭시의 장 라무르(Jean L'amour, 1698~1771)가 가장 뛰어났다. 1759년에는 금식기와 은 접시들을 녹이라는 루이 15세의 칙령으로 인하여 도자기로 된 식기가 그 대신 필요하게 되었으며³⁷⁾ 이에 따라 화려한 도자기 제품들이 생산되었다.

스투코는 대리석분이나 석회, 모래, 백토, 카세인과 같은 여러 물질을 혼합하여 형성된 미장재료를 일컫는데, 그 용도에 따라 건축물 실내 벽 마감재로 쓰이는 치장 칠흙이나, 양각 부조로 장식된 회반죽을 말한다. 스투코는 조형미술의 한 요소로서 실내장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로코코 시대에 가장 주된 역할을 한 분야로서 전 유럽에 걸쳐 귀족들이 거처하던 궁전의 응접실과 내실을 장식하는데 쓰였다.

로코코 양식에서 조각은 보통 전체적인 조화를 고려하고 건축 안에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한다. 수공적인 완벽함, 의도적으로 연출된 조명, 세련된 채색은 조각의 표현을 강화했다.

사실상 실내장식은 호화로운 재료와 색채, 특수하게 조각된 거울, 스투코, 목재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언제나 색다른 조화를 이루어내는데, 각 공간은 하나의 독립적인 세계로 간주되어 장식가는 동일한 건물 내 타 공간과의 전체적 조화를 염려하지 않고 자신의 창조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자유를 누렸다.³⁸⁾

36) 김연주(2010), 「마리 앙투아네트 복식을 통해 본 로코코 복식의 조형성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8.

37) 한원영(2011), 「로코코시대 인물화에 나타난 메이크업 특성과 색채에 관한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0.

38) 노윤희, 전제서, p.8.

제 3 장 로코코 양식의 미용문화

제 1 절 로코코 양식의 헤어

1. 여성의 헤어스타일

화려한 예술장식과 곡선형태의 실내장식들이 사회전반에 반영됨으로써 헤어스타일에도 영향을 미쳐 이 시대의 특성인 과다한 장식과 로맨틱하고 감각적이며 자유롭고 부드러운 곡선이 헤어스타일에도 반영되었다. 로코코 시대의 헤어스타일은 전후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화려한 전성기를 누렸는데 헤어스타일의 유행을 주도한 것은 왕의 정부와 여왕이었다.

18세기 초반에는 머리에 파우더가 뿌러지기 시작했는데, 이 이상한 관습은 루이 14세 말기부터 시작하여 프랑스 혁명 시 약간 주춤했으나 거의 90년간을 사용하였다. 세기 말엽까지 상류층에 속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나 머리에 파우더를 뿌려야 했다. 파우더를 골고루 뿌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다. 귀족들은 이를 위해 별실을 마련하였다. 파우더를 천장에 대고 털어내면 그 가루가 눈이나 입, 코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얼굴을 봉지에 숨기고 있었다.³⁹⁾ 정성껏 손질한 머리에 파우더를 뿌리는 중요한 일만큼은 페리퀴에(perruquier)라는 전문가의 손을 빌었다. 머리 모양은 유행에 따라 높은 가발을 쓰거나 작은 모자를 쓰는 등 달랐지만, 헤어스타일이 모두 정리되면 마지막 과정으로 머리에 파우더를 뿌리는 것은 늘 같았다. 가발을 쓸 때에도 가발 자체는 검은색이었으나, 일반적으로 흰색이나 회색 파우더를 뿌렸다. 전쟁터에 나가 목숨을 걸고 전투를 치르는 보병들도 배낭에 파우더와 이를 머리에 뿌리는 솜뭉치를 넣은 작은 상자, 머리카락을 매는 ‘고데기’를 가지고 다녔을 정도였다.⁴⁰⁾

당시 사용한 파우더는 주로 전분이나 곡물 가루를 썼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파우더를 뿌려졌던지 사회 문제가 되어 새로운 법이 제정되기도

39) 이재원, 전제서, p.92.

40) 이지은, 전제서, pp.225-226.

했다. 1740년 대기근이 닥쳤을 때 의회가 머리에 파우더를 뿌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을 만들었는데 이 법 때문에 파우더 가격이 여덟 배나 뛰었지만 여전히 파우더를 뿌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머리에 파우더를 뿌린 이유는 로코코의 사람들이 노년을 싫어하는 것을 역으로 표현한 것이다. 즉 남자는 40세를 넘어서면 많이 산 것이라 생각했고, 여자는 더욱 일찍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볼테르는 45세 때 완전히 자신을 노인이라 칭했는데, 이것은 당시 공통적인 생각이었다. 일찍 성숙했던 당시의 사람들은 청춘을 길게 보내고 싶어 열망한 결과, 연령의 차를 없애기 위해 늙은이도 젊은이도 회색의 머리를 하게 되었다.⁴¹⁾

17세기부터 패션과 미용의 중심인 프랑스의 유행은 유명한 프랑스의 남녀 미용사들에 의해 전 유럽 뿐 아니라 그 밖의 여러 나라로 퍼져 나갔다. 1767년 프랑스 파리에 1200명의 남자 미용사들이 여인의 머리를 치장하였다. 이들은 머리치장 뿐 아니라 사교계를 휘어잡으며 왕궁에서 흘러나오는 흥미 있는 정보와 소문을 그들의 고객들에게 재미있게 들려주었다. 몇몇 미용사는 머리 미용에 대한 저서를 쓰기도 하고 미용학교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1768년 리그로(Regros)는 저서 <프랑스 여인의 미용술>을 출판하여 성공을 거두었고, 또한 그는 마담 풍파두르의 후원을 받아 같은 해에 파리에 최초의 직업학교인 미용학교를 설립하였고 <코리에 드라 모드(Corier De Le Mode)>라는 잡지를 간행하였다. 각 호마다 96개의 새로운 머리 형태를 소개 하였는데 1772년에 이르러 그 수는 3,744종류나 되었다. 1778년에는 르페브르(Lefévre)는 그가 다룬 여인들의 미용의 원칙에 대해서 서술한 『조금만 생각하면 누구나 쉽게 자기 자신은 물론 남의 머리도 만질 수 있는 방법』을 출판하였다.

당시 머리를 빗는 것은 단순한 머리 정돈에서 벗어나 조형성과 디자인에 중점을 두었으며 갖가지 아이디어가 머리형에 응용되었다. 때문에 18세기 유럽전역에 프랑스 파리의 미용은 문화적으로 영향을 주었고 더불어 프랑스의 남녀미용사들은 유럽전역을 넘나들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다.

18세기 초 여성의 헤어스타일은 바로크 시대에 유행했던 풍탕주 스타일이

41) 유태순 외2명(2004), 『서양 화장 문화사』, 서울 : 동서교류, p.90.

이어져 인기를 누렸다. 풍탕주 스타일은 루이 14세의 애첩인 풍탕주(Fontange, 1661-1681)후작부인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으며, 풍탕주 후작부인이 루이 14세와 사냥을 하는 동안에 헤어스타일이 바람에 흐트러지자 자신의 모발을 가터로 묶은 임시방편의 헤어스타일을 루이 14세가 아름답다 하여 총애를 하자 궁중의 여인들이 그녀의 스타일을 모방하기 시작하여 유행한 스타일이다.

풍탕주 스타일은 리본이나 레이스로 머리를 묶고 앞에서 매듭을 지어 백색 마 또는 레이스에 풀을 뺏뺏이 먹여 반접은 부채모양으로 주름을 잡아 두세층의 탑처럼 세우고 철사로 틀을 만들어 이마에서 앞쪽으로 기울게 받친 후 리본, 다이아몬드, 진주, 깃털 등으로 장식하였다.

풍탕주 스타일에 사용된 레이스 가격은 매우 비싸게 팔렸고 종류도 다양하였으며 낮은 것에서부터 60cm에 이르는 것도 있었다. 몽테스키외(Montesquieu)는 1721년 「페르시아의 편지」에서 풍탕주의 어마어마한 높이 때문에 여성들의 얼굴이 그들 몸의 중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⁴²⁾ 고 썼을 정도로 풍탕주의 머리장식은 확실히 그 높이가 높아져서 수직 효과가 강화되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이 높이 올라가는 풍탕주 스타일은 값비싼 레이스로 인해 한동안 금지 되었다가 다시 유행되어 루이 15세가 왕위에 올라서도 약 15년간 계속되었다.



<그림 3-1> 풍탕주 헤어스타일

42) 이재원, 전계서, p.56.

높이 솟은 풍탕주 스타일에 이어 머리카락 전체에 부드럽게 웨이브를 넣어 머리에 붙인 뒤 평평하게 쪽머리를 만드는 헤어스타일이 등장했다. 루이 15세의 정부였던 마담 풍파두르가 즐겨하여 풍파두르 스타일 이라고 불린 이 머리형의 처음 스타일은 전체의 머리를 위로 빗어 올려서 정돈하여 탑에 시봉을 만들고 그것을 작은 바티스트마제의 캡으로 싸고, 머리형을 되도록 작게 보이는 방법이었다.

풍파두르 스타일은 깔끔하고 단정한 스타일로서 머리카락을 부풀리지 않고 뒤로 빗어 넘겨 하나로 묶은 뒤 쪽지는 것처럼 안으로 말아 넣어 목덜미를 노출시킨 우아하고도 깔끔한 머리형으로 때로는 머리 위에 조화나 다이아몬드, 진주 등의 보석을 박은 리본이나 금이나 은으로 만든 머리핀, 레이스 캡, 깃털 등의 화려한 장식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림 3-2> 풍파두르 헤어스타일

루이 15세의 또 다른 정부인 마담 뒤바리(Madame du Barry, 1743-1793)의 헤어스타일은 풍파두르의 영향만큼 크지는 않았으나 한 때 유행하였다. 마담 뒤바리는 어느 때는 쇼트로 머리를 잘랐고 어느 때는 정면의 머리를 이어 포인트에서 이어 포인트로 나누어 구분해서 느슨한 컬⁴³⁾로 작은 패드나 쿠션을 주어 그 위에 흘러내리게끔 하고 후두부에는 여러 개의 컬을 만들어 리본으로 묶었다.

43) 고지혜(2010), 「17~18세기 동서양 헤어도(Hairdo) 조형미 비교연구」, 영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1.



<그림 3-3> 뒤바리 헤어스타일

1760년 로코코의 여왕이라 불리던 마리 앙투아네트 시대에 남자미용사인 레오나르(Léonard)가 고안한 것 중에서 대 유행한 푸프(Pouf) 스타일⁴⁴⁾이 있다. 과장된 허풍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푸프 스타일은 꺾을 많이 말아서 머리전체를 웨이브로 부풀려 파우더를 뿌린 큰 머리 형태를 말한다. 그는 그것을 여러 가지로 변화시켜서 사용하였다. 이 푸프(Pouf)스타일은 방식을 이용하여 머리채를 장식할 정도로 매우 독창적이었다. 그 당시 모든 여인들은 지금까지 아무도 하지 않은 독창적인 머리를 하고 싶어 했다. 당시 머리를 빗는 것은 단순히 머리를 정돈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형으로 만들어 낼 것인가 하는 디자인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미용사의 상상은 끝이 없었고 아무도 그들의 새로운 상상력을 제지할 수 없었다. 사실 그들은 고객이 요구하는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창작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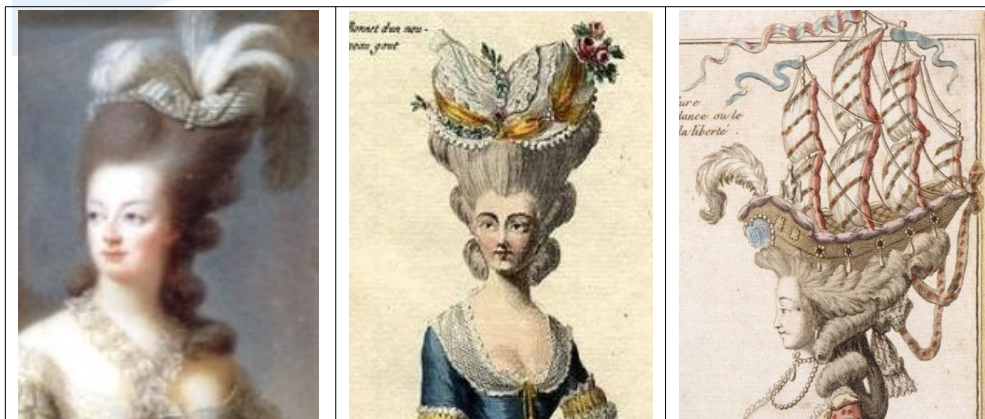
머리의 높이를 더하기 위하여 가발, 말 털의 쿠션, 철사 받침 등의 패드를 머리 위에 올려놓고 그 위는 자기 머리카락을 뜨거운 인두로 말아 올려 패드를 덮었으며 머리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수많은 핀을 꽂고, 전분이 들어있는 포마드⁴⁵⁾와 파우더를 발라 전체를 굳혔는데 그 높이는 역사상

44) 이해영(2010), 「업스타일의 시대적 형태변화 분석을 통한 현대적 업스타일의 기법 적용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

45) 포마드(pomade) : 점성유지와 납의 혼합물로 만든 정발료. 향료나 수지를 사과 속에 채워 넣어 소나 말의 기름 속에 담가 두었다가 꺼내어 지분을 분리하여 만든다.(이유나, 전개논문, p.12.)

가장 거대한 90cm까지 달하기도 하였다. 이전의 머리 스타일보다 머리장식이 더 높아지고 커지며 머리 모양이 더욱 난해해짐에 따라 여성들은 종종 가발에 의존했다. 머리장식의 재료와 주제는 무한하여 이제까지 사용해 왔던 꽃, 레이스, 리본, 장식용 편과 빗 외에도 나무판, 박제된 새, 형겔으로 만든 작은 인형, 태양, 달, 별, 정원의 장식, 작은 건물이나 군함 심지어는 먹는 과일까지 사용하였으며, 이 머리형의 주제는 한계가 없을 정도로 다양하여 최근 일어난 사건을 머리로 표현하여 유리로 만든 돛단배, 마차, 대포 동물들이 무리지어 있는 풍차 등도 머리 장식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무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동양의 건축물과 가구 등 다양한 문물이 유입되어 헤어장식으로 동양풍의 공작 깃털이 이용되었는데 마리 앙투아네트와 그녀를 따르는 여인들이 베르사유궁전의 거울실을 함께 배회할 때는 마치 깃털로 된 밀림이 움직이는 것 같았다고 전해진다.

푸프 스타일은 그 이름이 다양할 정도로 수많은 스타일로 발전하였는데 정치상의 사건은 물론이고 문학 철학에 관한 것들을 머리에 장식으로 표현하여 머리 형태는 상상을 초월한 극단적인 형태가 유행을 하고 머리의 장식물은 시사성이 있는 것으로 그 시대를 풍자하기도 했다. 미국독립전쟁 승리 후 자유라는 두식이 등장하기도 하였고, 1887년 프랑스 군함이 영국 군함을 격파시켰을 때에는 자연스럽게 여성들의 머리치장에 배 모양의 장식을 해서 이를 기념했는데, 이 머리모양은 당시의 전투보다 더 유명하였으며 해진, 열 공기구라 이름 붙여졌다.



<그림 3-4> 푸프 헤어스타일

푸프 스타일은 다양한 형태로 더욱 발전하여 나중에는 기계적인 푸프를 발명하여 집안에서 문을 통과할 때 몸을 굽히지 않고 푸프만 구부러지게 하였다.

이 시대의 취향은 헤어스타일을 예술적이고 환상적인 것의 극치로 이르게 되었고 장식 기교에 있어서 가능성의 극한점까지 도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건축적인 머리형을 준비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과 돈이 들었기 때문에 귀부인 들조차도 일주일에서 보름에 한 번씩 새롭게 머리를 다듬었고 더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뜸하게 헤어스타일을 다듬었다. 따라서 중류층 여자들은 한 달 혹은 그 이상을 똑같은 헤어스타일을 한 채 그 사이에는 빗질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매일 먼지를 털고 기름을 바르고 해서 손질을 한다고 해도 그 불결함은 말 할 것도 없이 머리에 이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였으며 상아, 금, 은, 다이아몬드를 박은 그라투아르(Grastoir)라고 하는 끝이 뾰족하고 가는 막대기로 머리의 밑에 집어넣어서 두피를 긁기도 하였고 머리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향수를 애용했다. 또한 실생활에 여러 가지 장애를 주게 한 것은 물론이고 부인들은 마차에 타더라도 머리가 마차 천장에 닿아서 앉을 수가 없어서 마차의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창밖으로 내놓아야⁴⁶⁾ 했다.

세기말에 이르러 귀족풍의 화려한 의복과 광신적이며 환상적으로 높이 올라간 머리는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복장의 간소화와 함께 파우더와 포마드 사용이 중단되면서 그리스 로마 풍의 인간중심의 사조로 인해 티투스(titus)라 불리는 스타일인 자신의 두발을 짧게 잘라 꺾하는 자연스러운 머리 형태로 로코코 시대 헤어 패션의 막을 내리게 되었으며 높은 머리는 공식적인 행사 때만 하게 되었다.⁴⁷⁾

46) 전선정(1994), 「서구여성의 머리형태 변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3.

47) 한지선(2012), 「18세기 로코코 시대의 여성 미용문화 분석을 통한 미용작품 연구」, 성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4.

2. 남성의 헤어스타일

18세기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머리장식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18세기 남성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가발과 관련된 것으로 가발의 사용은 루이 13세가 탈모를 감추기 위한 방법으로 착용하였으나 이것이 와전되어 자연스레 귀족들 사이에서 유행하기 시작하였고, 루이 14세 시대에 이르러 상류계급의 권위를 나타내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17세기의 유명한 전 가발과 같은 거추장스러운 가발의 사용이 18세기에는 차츰 줄어들었다. 다양한 재료들이 가발의 재료로 사용되어 사람의 머리털이나 동물의 털, 꼬리, 모헤어 털실, 철사 등이 이용되었다. 가발의 색은 검정색, 회색, 흰색, 갈색, 연한 황갈색이 있었고 가장 선호했던 가발 색상은 갈색으로 마치 위엄 있는 사자와 같이 보였기 때문이다. 정장 착용 시에는 반드시 가발에 파우더를 뿌렸으며 이는 살롱에서의 에티켓으로 갖가지 색의 파우더를 과도하게 뿌렸다.

가발은 외관상 뒤쪽에 늘어뜨린 꼬리부분은 모두 똑같지만 앞머리의 길이와 흐름의 방향, 옆머리, 컬의 형태와 수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었다. 가발의 종류와 형태도 다양하여 직업, 복장, 나이에 따라 가발이 변화하였고 그것으로 직업과 사회계층의 지위를 구별할 수 있었다. 신부의 가발, 법관의 가발, 장교의 가발, 궁중의 가발, 장인의 가발 등의 종류가 있었고 가발의 형태에서 보면 재단사의 가발에는 1개의 컬(curl)이 있고 보석상 주인이나 이발사이자 가발사의 가발은 2개 이상의 컬이 있고 약제사의 컬이 3개였다.⁴⁸⁾

루이 16세 치하에서 여성들의 헤어스타일이 도에 넘치게 커다란 부피를 차지했을 때 남성의 헤어스타일도 20개의 두꺼운 둥근 컬 모양을 머리에 둘러 만들어 놓은 소위 아 라 누벨 아도니스(à la nouvel Adonis)가 있었다. 이마의 머리카락을 세워 부풀리고 흔들리는 술 모양으로 하는 것이 오랫동안 유행⁴⁹⁾하였다.

48) 정현진 외5명(2004), 『미용문화사』, 서울 : 광문각, p.96.

49) 이재원, 전게서, p.90.

풀버텀 위그(Full-bottomed wig)는 1710년경부터 높이가 줄어들고 길이가 짧아져 편리한 가발의 형태로 변화되었다. 1730년에 이르러서는 전문직, 노인, 궁정복 착용 시 이용되었으며 법관이나 성직자들의 위엄을 위한 것으로만 남게 되었다.

18세기 초에는 중국을 통해 전 유럽에 전파되어 군인들의 머리형이 되었던 단정하고 편리한 땡은 머리가 일반인에게 보급되었다. 이 머리는 피크테일(Pig tail)이라고 하며 본래의 발상은 퉁구스족이나 만주인에게서 유래된 것으로 단정하고 편리한 머리 형태로 자리 잡아 정장이 아닌 복장에 주로 썼고 매우 스마트한 형태였다.

피그테일은 머리의 높이를 낮게 하고 뒤에서 한 묶음으로 리본을 매거나, 이 외에 옆머리를 짧게 잘라 비둘기 날개형이나 켄로 다듬고 뒷머리는 크라포라 부르는 검은 타프타 주머니에 넣어 그 위 끝을 끝으로 조이고 나비 묶음을 한 머리의 스타일을 말한다.⁵⁰⁾

1770년대에 유행한 카도간 위그(Cadogan wig)는 옆면은 두 개의 구불 거리를 머리채가 얼굴을 감싸 귀를 가리게 하고, 뒷면은 머리를 뒤 중심으로 모아 카도간이라는 검은 리본으로 묶고 리본의 나머지 부분을 앞 목에서 브로치로 고정시킨 형이었다.



<그림 3-5> 풀버텀 위그



<그림 3-6> 카도간 위그

50) 전선정 외3명(2001), 『미용학과 미용문화사』, 서울 : 청구문화사, p.115.

컷 위그(Cut wig)는 주로 농부나 노동계층에서 애용된 가발로 가발의 전체길이가 짧고 컬이 없는 단순한 형이었다.

백 위그(Bag wig)는 18세기에 귀족과 일반인들에게 성행한 스타일로 정장차림에 쓴 가발로 땀을 머리를 검정색 네모난 주머니에 넣고 뒷목에서 검정색 리본으로 나비처럼 묶어주는 형이다.

라밀리 위그(Ramillie wig)는 머리를 길게 땋아서 뒷목과 맨 끝, 두 군데를 검정색 리본으로 매어주거나 끝에서만 매어준 것으로 영국에서는 군위병 장교나 젊은이들이 이 가발을 썼다.⁵¹⁾



<그림 3-7> 백위그



<그림 3-8> 라밀리 위그

보브 위그(Bob wig)는 머리를 뒤로 빗어 넘겨 목이 보일 정도로 짧거나 목을 가리는 것으로 머리끝은 둥근 컬이나 웨이브가 있다 지는 가발이다. 모든 계층에서 정장이 아닌 복장을 할 때나 비공식적인 상황에서 1790년까지 쓰였다.

18세기 중엽의 모든 사람들이 가발을 사용하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자연적인 머리를 가발을 쓴 것처럼 하기 위해 목덜미에 묶었는데 이는 타이 위그(tie wig)라 하였다.

군대에서는 군병들이 머리를 한 갈래로 목덜미에 묶는 가발을 썼다. 헝가리기병대들은 카드넷트(cadenettes)라는 머리를 선호하였는데 길게 땋아

51) 곽형심 외6명(2004), 『미용문화사』, 서울 : 청구문화사, p.188.

내린 머리채가 얼굴 양쪽으로 내려온 이 스타일을 헝가리 카드라고 불렀다. 이 머리형은 갈래가 3개인 경우를 더 선호했는데 전쟁 시 목과 뺨 부분이 칼에 베이는 것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⁵²⁾

1780년대 모드는 덩수룩하게 컷된 어리서(herrosson)스타일로 앞머리는 짧게 잘라 얼굴 주위에 곱슬하게 하여 후두부에는 늘어진 컬과 카도간 스타일로 연출하였다.



<그림 3-9> 보브 위그



<그림 3-10> 어리서

가발을 쓰면 머리가 덩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가끔 자수를 놓은 캡을 대신 쓰기도 했으며, 당대의 초상화를 보면 문필가와 철학자들은 때때로 머리를 매우 짧게 자른 맨머리⁵³⁾이기도 했다.

52) 정현진 외5명, 전계서, p.97.

53) 정인희(2005), 『서양 패션의 역사』, 시공아트, P.141.

제 2 절 로코코 양식의 메이크업

예술의 발전과 자본주의 출현으로 점차 개인주의와 퇴폐적인 향락주의로 흐른 18세기에는 자극적인 아름다움이 환영받는 시대였기에 메이크업은 상류계층에 있어 중요한 치장의 일부였다. 귀족 여성들은 세수와 볼일을 마친 후 투왈렛 오피시엘(toilette officielle)이라는 시간을 갖는데 이는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공적인 화장이 된다.⁵⁴⁾ 당시의 메이크업은 사교의 일환으로서 상류귀족 여성은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잠들 때까지 공들여 치장하는 것이 생활이었으며 이는 남성도 마찬가지로 분으로 얼굴을 하얗게 표현하고 볼과 입술에 연지를 발랐다.

18세기의 메이크업 경향으로는 1700년경 프랑스 궁정의 여성들은 얼굴을 하얗게 하고, 가슴에 파란색의 정맥(물에 씻기지 않는 파랑색 잉크로 가는 선)을 강조하였고 눈썹은 펜슬로 그렸다.⁵⁵⁾

메이크업의 기본인 피부에 바르는 백분은 흰 납으로 만든 분이나 쌀 분에 석연의 분말을 섞어 만든 분을 천에 묻혀 바르는 것으로 여기에 달걀흰자와 식초를 섞어 바르면 천사처럼 희게 빛이 난다 하였다.⁵⁶⁾ 이런 화장품은 대체로 집에서 만들어졌거나, 이발사, 엉터리 의사 심지어 연금술사에 의해 비전문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당시 화장은 그야말로 변신 그 자체였다. 백발의 유행에 맞추어 얼굴 또한 매우 희게 강조하였다. 우선 얼굴 전체에 백분을 바르는데 아무렇게나 바르는 것이 아니라 이마는 최대한 하얗게, 관자놀이 부분은 약간 덜 발라서 피부색이 드러나게, 볼은 약간 파란 빛이 돌게, 특히 입술 주변은 석고처럼 하얗게 바르는 것이 분칠의 정석이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분으로 얼굴의 상처나 붉은 빛이 최대한 가려지도록 각별히 신경 쓰는 것이다.⁵⁷⁾

백분으로 얼굴의 바탕을 온통 하얗게 칠하고 나면 이번엔 얼굴에 활기를 주기 위해 색조화장을 할 차례였다. 크레퐁(Crépon)이란 솜뭉치에 양홍

54) 이유나, 전개논문, p.23.

55) 허준(2005), 『눈썹의 역사』, 서울 : 동서교류, p.13.

56) 설혜심(2002), 『서양의 관상학』, 파주 : 한길사, p.242.

57) 이지은, 전개서, pp.222-223.

염료를 묻혀 뺨의 위치보다 약간 밑에 붉게 터치를 넣었다. 붉은 색의 정도에 따라 계층 간의 구별이 있었는데 창녀 같은 낮은 계급의 여성들은 피처럼 붉은 색을 발랐고 귀족들은 장밋빛을, 궁정인들은 선홍색을 주로 사용하였다. 18세기의 연지 화장은 건강한 붉은빛이 아닌 과도하고 인공적인 붉은 화장으로 장미 꽃봉오리 같은 작고 빨간 입술을 선호하여 입술에도 연지 화장을 하였다. 관능미를 부각시키고 늙은 모습을 가려주는 연지 덕분에 눈속임을 절정기를 맞이했고 여인들은 잠들 때도 열은 볼 화장을 하였으며, 유아기를 넘긴 모든 얼굴에는 화장품이 발렸다.⁵⁸⁾

연지 종류도 다양했는데 얼마나 심하게 사용했는가는 마담 뒤가종이 1781년 몽클라 화장품 판매상에게 72쪽의 연지를 샀다는 예에서 알 수 있으며 엘베의 기사가 추정한 바에 의하면 같은 시기 프랑스에서만도 연간 소비가 2백만 쪽에 달했다고 한다.⁵⁹⁾

또한 무엇보다 연약한 여자처럼 보이기 위해 그 위에 파란 연필로 정맥을 치장하였으며, 흰 피부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깨끗하게 강조된 검은 눈썹과 패치(Patch)를 붙이는 것이 유행이었다. 눈썹은 재 가루를 기름에 녹여 만든 연필로 정확히 일자가 되게 그리고, 눈썹 한 올 한 올 모두 셀 수 있을 정도로 잘 빗어주어야 한다.

패치는 뷰티패치(beauty patch) 또는 뷰티스팟(beauty spot)이라고도 불렸으며 후추, 검은 비단, 벨벳 등의 천 조각과 종이 조각 등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손가락 크기만큼 잘라서 아교나 고무풀로 붙이는 것⁶⁰⁾이었는데, 심지어는 다이아몬드 등의 보석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패치는 붙이는 장소에 따라 의미가 달라 하나하나 세세하게 명칭을 붙여 메시지 역할도 하였는데 이마의 중간에 붙이면 존엄한 점, 코에 붙이면 뽀뽀스러운 점, 눈에 붙이면 열정적인 점, 입 언저리에 붙이면 입맞춤을 즐기는 점, 입술 위에 붙이면 교태부리는 점, 뺨 한가운데에 붙이면 예의 바른 점, 입과 턱 중간이면 침묵하는 점, 여드름 위에 붙이면 도둑점이라는 이름을 붙였다.⁶¹⁾

58) 지현(1998), 『화장술의 역사』, 서울 : 시공사, p.54.

59) 안유리(2004), 「18세기 로코코 시대의 Hair Fashion의 경향」, 한남대학교 사회문화과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55-56.

60) 유은주(2010), 「컨셉트 미용실 도입을 위한 VMD전개 연구」, 동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5.

쥐의 피부로 인조눈썹을 만들어 아교로 붙여 주고 치아가 빠져 뺨이 들어간 부분에는 플럼퍼(plumper)라는 패드를 넣어 뺨을 통통하게 만들었고 촉촉하게 빛나는 눈빛을 위해 가지 과에 속하는 벨라도나(belladonna)의 즙을 이용하여 눈동자의 동공을 확대⁶²⁾ 시켰고, 가끔은 색조가 든 셀락 니스, 광택이 나는 도료를 덧칠했는데 이렇게 하면 얼굴을 움직이기가 힘들었으며 이들을 ‘화장한 그림’이라고 비꼬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였다.⁶³⁾ 이렇듯 18세기 유럽화장은 남녀모두 지나친 경향을 보여 양초로 만든 인형처럼 보이기도 하였으며 화장하기 전과 후의 얼굴이 많이 달라 서로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고 한다.

메이크업의 제품의 성분은 유해한 것이 많았는데, 특히 주근깨를 없애는데 사용되었던 메이크업 제품의 주성분은 수은이었고 눈에 칠하는 쿨 멕 또한 납과 황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인체에 매우 유독하였지만 여성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화장을 하였다. The Art of Beauty에 따르면 얼굴에 흰색 painting을 하는 것은 눈이 붓고 충혈 되어 통증을 주기도 했다고 한다.⁶⁴⁾

하얀 분을 바르고 그 위에 빨간색을 바르는 홍색 화장법은 18세기 말까지 계속되었고, 1780년대가 되면서부터 피부에 안전한 활석가루를 사용하고 입술에는 카민안료와 석고분 연지를 쓰게 되었고 1789년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 귀족사회가 붕괴되어 건강함과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선호되면서부터 붉은 포도주의 찌꺼기나 장미꽃잎에서 추출된 붉은색 등의 자연적인 색채의 메이크업 용품이 나타나게 되었다.

61) 이재원, 전계서, p.77.

62) 전선정 외3명, 전계서, p.123.

63) 설혜심, 전계서, p.242.

64) 지정아(1999), 「18세기 로코코 시대의 복식, 헤어, 메이크업 경향에 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3,

제 3 절 로코코 양식의 복식

1. 여성 복식

로코코시대에는 의상의 예술성에 가치를 두어 의상을 어떻게 멋지게 입을 수 있느냐가 중요했으며, 안목이 있는 사람들은 패션의 변화를 따라감으로써, 그리고 좋은 옷을 두루 갖추므로써 그렇지 못한 대중과 자신들을 차별화했다. 또한 자신의 아름다움을 돋보일 수 있게 하는 패션스타일과 세련된 행동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자신감인 동시에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했다. 이 시기 복식은 여자 복식사상 가장 사치스럽고 화려한 경향을 띄었는데 옷 한 벌에 프릴, 러플, 레이스, 리본, 꽃 등 모든 장식을 사용하였다.

로코코 시대의 의상은 그들의 향락적인 생활이 의상에 그대로 반영되어 가슴은 깊게 파이고 연약한 여성미를 나타내기 위해 코르셋을 이용하여 허리를 극도로 조였으며 파니에를 입어 스커트를 풍성하게 펼침으로써 여성적인 곡선미를 강조하였고 남성복 또한 여성적인 우아함을 띠게 하였다. 루이 15세의 친정기와 루이 16세 시대 왕의 애첩과 왕비는 패션 리더로서 그들의 복식은 곧 프랑스 사교계에 유행이 되었고, 프랑스 살롱을 중심으로 번져나가 이는 다시 유럽 전역으로 파급되었다.⁶⁵⁾

18세기 복식이 그토록 화려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영국의 산업 혁명으로 인한 자동직기의 발전과 식민지에서 저가 면화의 수입과 섬유의 날염법의 발전으로 생산이 증대되었고, 레이스와 리본 직기의 자동화로 레이스, 러플, 리본, 꽃 등으로 화려하고 많은 장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8세기 초 뉴우튼(Issac Newton)이 빛의 3원색을 알아내고 다시 마이어(Johann Tobias Mayor)가 이를 혼합하는 원칙을 세워, 인간의 눈으로 감지 할 수 있는 91가지의 명암과 9,381가지의 색상을 얻었다.⁶⁶⁾ 많이 애용된 색으로는 밝은 황색이나 은색, 장미색 등의 파스텔의 부드러운 색 등이 있고 루이 15세

65) 한순자 외2명(2001), 『서양 복식 문화사』, 서울 : 예학사, p.100.

66) 정홍숙(1997), 『서양복식문화사』, 파주 : 교문사, p.240.

시대에는 짙은 붉은 색에서 갈색에 이르기까지 붉은 색 계통의 색상 및 푸른색이 유행하였으며, 루이 16세 때에는 갈색에 보라색이 섞인 색이 유행했다. 또한 파리에서는 유행하는 빛깔에 이름을 붙이는 것에 재미를 붙였으며 하수구, 거리의 쓰레기, 님프의 넓적다리, 카르멜 수도사의 배, 중독된 원숭이, 유쾌한 과부, 변비 걸린 색, 멧쟁이의 내장, 병든 스페인사람, 부활한 죽은 자와 같은 가능한 한 이상한 이름을 붙였다.

로코코 시대의 여성복식은 여성 속옷인 슈미즈를 입고 그 위에 코르셋을 입어 허리를 조였다. 그 위에 스톰커(stomacher)를 입고 언더스커트나 파니에로 스커트의 볼륨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로브를 입어 의복을 완성하였다. 슈미즈는 맨살위에 입는 넉넉한 원피스 형의 속옷으로 린넨 소재가 많았고 슈미즈의 목둘레선과 소매, 단 등에는 화려한 고급 레이스나 프릴로 장식하였고 이런 속옷을 로브 밑으로 살짝 보이게 하였다. 18세기에는 속옷을 깨끗하게 입는 것 보다 값비싼 것으로 치장하는 데에 더 큰 가치를 두었⁶⁷⁾다.

18세기의 가는 허리와 부풀린 스커트는 이전보다도 여성의 복식미를 표현하는데 필수 요소가 되었고 가는 허리와 가슴을 강조하기 위하여 슈미즈 위에 코르셋을 착용하였다. 여성들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코르셋을 착용하며 지냈으며 코르셋의 심은 철사나 납, 고래수염 등으로 제작되었고 앞면은 장식적인 성격을 띠어 자수로 화려하게 장식되었다.



<그림 3-11> 슈미즈



<그림 3-12> 코르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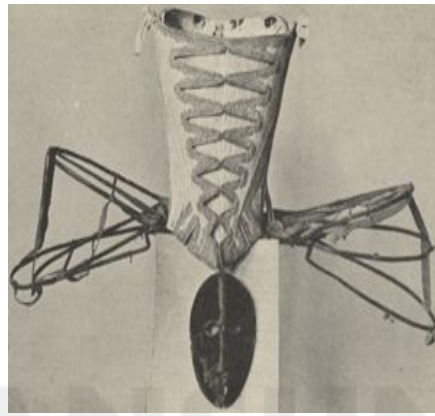
67) 이계진(2010), 「근대 서양복식의 미적특성을 응용한 패션 디자인연구」, 한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3.

여성의 흉부를 장식한 스토퍼커는 역삼각형의 장식물로서 보석과 리본, 단추 등으로 호화롭게 장식하여 아름답게 만들어졌다.

파니에는 바구니라는 뜻의 불어로 스커트의 폭이 넓어지는데 큰 몫을 하였다. 파니에는 때때로 고래수염이나 버들가지 작대로 지탱해 폭이 15피트에 달하기도 하였는데, 귀부인들 사이에 경쟁적으로 옆으로 더욱 확대된 파니에 두블(panier double)로 인해 구성법은 한층 복잡해졌고 과장되었⁶⁸⁾으며, 출입구를 지날 때는 옆으로 걸어야 했고 나란히 걷거나 같은 의자에 앉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불편함이 따랐다.



<그림 3-13> 스토퍼커



<그림 3-14> 파니에

화려한 여성의 로브는 오버 스커트 안에 언더 스커트가 보이는 형태로, 걷어 올리거나 앞으로 벌어진 오버스커트 사이로 언더 스커트가 노출되었기 때문에 레이스, 러플, 리본, 활발라(falbala, 형꽃이나 레이스를 주름잡아 만든 트리밍)등으로 언더 스커트를 화려하게 장식하였다.⁶⁹⁾

로코코 시대의 여자 복식은 로브의 구성방법과 실루엣에 따라 명칭이 다양했으며 대표적인 로브는 뒤의 주름이 풍성한 와토 가운이다. 와토 가운은 18세기의 특징적인 로브의 형태로, 프랑스 화가 와토가 이 가운을 입은 부인을 즐겨 그린 데서 연유하여 와토 가운 혹은 로브 와토(rove wateau)라고도 하였다.걸을 때마다 뒷모습이 아름답게 너울거려 여기의

68) 최지혜(2003), 「로코코 시대 로브를 응용한 웨딩드레스 디자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

69) 조진애(2002), 『그림에서 표현된 근세 서양 복식』, 경춘사, p.148.

블랑(volante : 너울거리다) 또는 바탕(battante : 나부끼다)의 표현을 붙여로
로브 블랑 또는 로브 바탕으로 불리워지는 이 가운은 전체적으로 풍성한
주름이 등 뒤에 있고 허리선이 없어 어깨부터 단까지 주름 잡힌 풍성한
텐트 형태로 로브 안에 돔 모양의 후프를 착용해 코르셋과 페티코트
(petticote)와 함께 입었다.



<그림 3-15> 와토가운

와토 가운이 규모가 커지고 화려하게 장식이 되면서 와토 가운은 로브
아 라 프랑세즈(robe a la francaise)로 불렸다.⁷⁰⁾ 퐁파두르 부인의 취향에
영향을 받은 여성적인 스타일의 로브 아 라 프랑세즈는 18세기 로브 중
가장 화려하게 장식된 의상으로 네크라인은 깊은 U형태로 그 안에 화려한
장식의 스토퍼커를 착용하였고 가슴부위에는 리본과 레이스 장식으로
꾸며졌다. 소매는 팔에 꼭 끼게 되면서 앙가장트(angageantes)는 더욱
풍성해졌으며, 고급 레이스로 폭이 점점 넓어지면서 모양을 낸 러플을 두 개,
가능하면 세 개까지 달았고 소매 안쪽 부분에 리본을 달았다. 로브 아 라
프랑세즈는 가슴 앞의 이음 밑으로 스커트가 개더(gather)나 플레어(flare)

70) 배수정 외9명(2008), 『현대패션과 서양 복식 문화사』, 수학사, p.192.

로 중앙에서 A형으로 벌어져 언더 스커트가 보이는 형태로서 리본, 꽃, 레이스, 자수 등을 이용하여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또한 파니에 두블이 애용됨에 따라 스커트 폭이 최대로 넓어진 형태로 스커트는 허리선부터 옆으로 직각으로 퍼지고 앞뒤는 납작한 형태로 까지 발전⁷¹⁾하였다.



<그림 3-16> 로브 아 라 프랑세즈

로코코 의상의 화려함을 대변하는 로브 아 라 프랑세즈의 유행은 1770년대 후반부터는 좀 더 간소한 로브들이 등장하여 스커트의 부풀림이 소극적이 되고 간편해지면서 변화를 줄 수 있었다.

로브 아 라 폴로네즈(robe a la polonaise)는 폴란드의 민족복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는 로코코 말기의 대표적인 로브로 특징적인 것은 로브 아 라 폴로네즈의 오버드레스의 스커트자락을 두 곳에서 위로 걷어 올려 뒤 중심과 양옆에 커다란 퍼프가 모두 세 개가 형성⁷²⁾되어 언더 스커트가 많이 노출 되었고 네크라인의 가장자리는 플리츠로 장식을 하고 스커트는 종 모양으로 활동이 편리해졌다. 또한 자보 슬리브(jabot sleeve)로서 팔꿈치

71) 고애란(2008), 『서양 복식문화와 역사』, 교문사, p.226.

72) 신상옥(2006), 『서양복식사』, 수학사, p.213.

까지 꼭 끼고 그 끝은 러플(ruffle)로 소매 장식을 하였다. 커튼을 드리운 것 같은 우아한 로브 아 라 폴로네즈는 1776년에서 1787년까지 유행하였다.

로브 아라 시르카시엔(robe a la circassienne)은 로브 아라 폴로네즈의 변형으로 그와 형태와 비슷하지만 깊게 판 목둘레선의 양옆과 뒤에는 스탠딩 프릴을 달고, 스커트는 역사상 처음으로 길이가 짧아져 발목이 많이 노출되는 벌룬(ballon)형이 되었으며 형식적인 자리를 피하여 70년대부터 80년대 후반에 착용하였다.



<그림 3-17> 로브 아 라 폴로네즈



<그림 3-18> 로브 아 라 시르카시엔

1778년경에 나타난 로브의 형태인 로브 아 랑글레즈(robe a l'anglaise)는 영국풍 유행에 의한 실용적인 스타일로 파니에 없이 엉덩이 부분에 패드된 버슬만 입고 착용하는 로브로서 두 폭으로 만들어진 웨스트코트(waistcoat) 위를 덮으면서 앞이 개방된 옷이다. 가슴부분에는 프릴장식을 넣어 강조하고, 스커트는 길고 폭이 넓으며, 소매는 길고 가는 모양에서 부드럽고 풍성한 팔꿈치 길이의 퍼프 슬리브(puff sleeve)까지 다양하였다. 이 가운은 간편하면서 풍성해서 프랑스 혁명이후에도 애용되었다.

1781년 매우 인기 있던 스타일로 마리 앙투아네트가 처음 입었던 슈미즈 아 라 렌느(chemise a la reine)는 퀸즈 가운(queen's gown) 이라고도 하며 가벼운 실크나 울, 얇은 직물로 만들어 부드러운 실루엣을 이룬다. 스커트 안에 파니에나 코르셋을 착용하지 않아서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실루엣이 특징인 슈미즈 아 라 렌느는 허리선에 풍성하게 주름을 잡고 천으로 만든 새시벨트(sash belt)를 하고 허리뒤통에서 크게 리본으로 매어 늘어뜨렸다. 넥라인은 둥글고 크게 파 러플을 달았고 풍성한 소매를 중간에 한두 번 오므려서 퍼프형태를 만들었다.



<그림 3-19> 로브 아 라 랑글레즈



<그림 3-20> 슈미즈 아 라 렌느

로코코 시대는 가는 허리를 강조한 부풀린 스커트가 이전 시대보다 더 여성미의 절대적 요소가 되어 초기 패션스타일의 실루엣은 원추형에서 조금씩 옆으로 퍼지고 중기에는 극단적으로 옆으로 퍼지게 되었으며, 지나치게 화려한 장식들 또한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간소한 아름다움이 등장하여 자연스러운 고대 스타일로 바뀌었다.

대표적인 외투로는 망토형이나 케이프형의 펠리스(pelisse)와 펠러린(pelerine)과 남성 재킷 형태인 르댕고트(redingote)가 있었다. 펠리스와

펠러린은 리본이나 단추로 위쪽만 여몄고 플랫칼라, 후드 또는 어깨를 덮는 케이프가 달렸다. 따뜻한 날씨에는 실크 등 가벼운 직물이 사용되었고 추운 날씨에는 벨벳이나 모직물이 사용되어 안쪽 전체 또는 가장자리에만 모피를 대어 입었다. 펠러린은 손을 내놓을 수 있는 트임이 양쪽에 있는 것도 있었다. 1787년경에 소개된 르덴고트 가운은 여자 코트의 시초로 재킷과 스커트로 구성되어 더블 여밈에 큰 라벨(lapel)과 허리에 테슬 장식이 있다. 지금까지의 화려하고 여성적인 로브 스타일과는 대조적인 남성적인 디자인으로 실용적인 것을 목적으로 울로 만들었다.⁷³⁾

18세기 후반에 스커트가 어느 정도 짧아지게 되자 구두의 장식에 관심이 쏠려졌다. 여성의 구두는 로코코 양식의 세련되고 우아한 선과 장식적인 심미성으로 인해 하나의 예술품으로 간주되었다.⁷⁴⁾ 귀부인들은 뭘 수 있는 한 자기 발보다 작은 구두를 신었는데 형겔과 비단 혹은 린넨으로 앞코가 뽀족하게 만들었고 취향에 따라 자수를 놓거나 금, 은, 보석으로 장식하고 앞을 조여 주는 버클로 치장하였다. 이때 구두 뒤꿈치의 우아한 곡선과 높이의 조화는 구두의 가치를 결정했다.⁷⁵⁾



73) 김영옥, 안수경(2009), 『서양복식문화의 현대적 이해』, 서울 : 경춘사, p.185.

74) 신화영(2005), 「로코코 양식을 응용한 직물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1.

75) 공희정(2007), 「로코코스타일을 응용한 파티장신구 연구」, 서울산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7.

2. 남성 복식

18세기 남성의 기본 복식은 17세기에 확립된 코트, 웨이스트 코트, 셔츠 그리고 바지의 형식을 유지하고 로코코 양식이 반영되어 실루엣에 변화가 생겼다. 일상복과 특별한 경우에 입는 의식복의 품목은 형태에 별 차이가 없는 반면 사용한 직물에 따라 실크나 브로케이드⁷⁶⁾ 소재의 자수 및 기타 장식을 한 것은 의례복으로, 실용적인 직물로 만든 것은 평상시에 입었다⁷⁷⁾.

남자들의 기본복장은 상의로 베스트(vest)와 쥐스토코르(justaucorps)를 입고 하의로 넓적다리에 꼭 끼는 바지 쿨로트(culotte)를 입고, 흰 모슬린이나 레이스로 주름을 잡아 앞 중심에 늘어뜨린 자보(jabot)로 포인트를 주어 한 세트의 옷차림을 완성하였다.



<그림 3-21> 자보



<그림 3-22> 베스트

17세기 바로크 시대에 상의로 착용했던 푸르푸앵이 쥐스토코르 속에 입혀지면서 실내복으로 변한 것을 베스트라고 하며 겉옷의 앞단추를 잠그지 않고 열어 놓아 속에 입은 베스트를 보이게 하여 장식적인 성격을 띠면서 앞 중앙과 포켓근처에 수를 놓았다. 초기에는 쥐스토코르나 프록보다 약간

76) 브로케이드(brocade) : 직조할 때 자카드식 직조기를 사용하여 꽃이나 다른 도안의 무늬가 도드라지게 짠 옷감.

77) 안현주(1994), 「로코코 복식을 응용한 현대 남성예복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9.

짧았으나 후기에 들어서면서 길이가 더욱 짧아졌다.

바지는 다리의 곡선이 그대로 보여 질 정도로 타이트하였으며 무릎 바로 아래 오는 짧은 길이였고 거기에 무릎까지 오는 긴 양말을 착용하였는데 바지 위로 그 양말을 올려 고정시켰다. 이를 켈로트라 하였으며 가죽을 재료로 사용하여 더욱 타이트한 켈로트가 상류사회에서 유행하였고 이외에도 흰색의 새틴소재도 많이 애용되었다. 초기에 무릎 위에오던 짧은 길이가 1730년경부터 무릎 밑에까지 내려왔고 말기에는 발목까지 내려가는 긴 바지가 유행하였다.



<그림 3-23> 켈로트



<그림 3-24> 쥐스토코르

쥐스토코르는 코트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었다. 여러 개의 단추로 디자인된 긴 상의로 시대의 취향을 반영하여 허리가 들어가고 단이 퍼지는 실루엣으로 변화였다.

쥐스토코르는 처음에는 귀족들만이 입을 수 있었으나 차츰 하류층에서도 입게 되었고, 실크나 벨벳 등 값비싼 직물에 금실로 화려하게 수놓아

장식하여 궁중에서 착용되면서 아비 아 라 프랑세즈(habit a la francaise)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⁷⁸⁾



<그림 3-25> 아비 아 라 프랑세즈



<그림 3-26> 르덴고트

르덴고트(redingote)는 영국의 승마용 라이딩 코트(riding coat)에서 유래된 것으로 길이는 쥐스토코르와 같거나 약간 길며 앞단에는 단추가 달리고 뒤 중앙에 슬릿을 넣어 활동성을 부과하였다.

남성의 외투는 여성들이 사용한 것 과 같은 외투로 마루에 끌릴 정도의 대형 플리스를 착용하였다.

78) 한이현(2009), 「여성 드레스 슈즈 브랜드 기획 및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3.

제 4 장 작품분석

제 1 절 로코코 양식의 헤어스타일

1. 풍탕주 스타일

풍탕주 스타일은 루이 14세의 애첩인 풍탕주 후작부인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으며, 풍탕주 후작부인이 루이 14세와 사냥을 하는 동안에 헤어스타일이 바람에 흐트러지자 자신의 모발을 가터로 묶은 임시방편의 헤어스타일을 루이 14세가 아름답다하여 충애를 하자 궁중의 여인들이 그녀의 스타일을 모방하기 시작하여 유행한 스타일이다.

풍탕주 스타일은 리본이나 레이스로 머리를 묶고 앞에서 매듭을 지어 백색 마 또는 레이스에 풀을 뿔뿔이 먹여 반접은 부채모양으로 주름을 잡아 두세층의 탑처럼 세우고 철사로 틀을 만들어 이마에서 앞쪽으로 기울게 받친 후 리본, 다이아몬드, 진주, 깃털 등으로 장식하였다.

풍탕주 스타일에 사용된 레이스 가격은 매우 비싸게 팔렸고 종류도 다양하였으며 낮은 것에서부터 60cm에 이르는 것도 있었다. 값비싼 레이스로 인해 한동안 금지 되었다가 다시 유행되어 루이 15세가 왕위에 올라서도 약 15년간 계속되었다.

2. 풍파두르 스타일

루이 15세의 정부였던 마담 풍파두르가 즐겨하여 풍파두르 스타일 이라고 불린 이 머리형의 처음 스타일은 전체의 머리를 위로 빗어 올려서 정돈하여 탑에 시봉을 만들고 그것을 작은 바티스트마제의 캡으로 싸고, 머리형을 되도록 작게 보이는 방법이었다.

풍파두르 스타일은 깔끔하고 단정한 스타일로서 머리카락을 부풀리지 않고 뒤로 빗어 넘겨 하나로 묶은 뒤 쪽지는 것처럼 안으로 말아 넣어

목덜미를 노출시킨 우아하고도 깔끔한 머리형으로 때로는 머리 위에 조화나 다이아몬드, 진주 등의 보석을 박은 리본이나 금이나 은으로 만든 머리핀, 레이스 캡, 깃털 등의 화려한 장식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3. 뒤바리 스타일

뒤바리 스타일은 루이 15세의 또 다른 정부인 마담 뒤바리의 이름에서 유래 되었으며 헤어스타일은 풍파두르의 영향만큼 크지는 않았으나 한 때 유행하였다. 마담 뒤바리는 어느 때는 쇼트로 머리를 잘랐고 어느 때는 정면의 머리를 이어 포인트에서 이어 포인트로 나누어 구분해서 느슨한 컬로 작은 패드나 쿠션을 주어 그 위에 흘러내리게끔 하고 후두부에는 여러 개의 컬을 만들어 리본으로 묶었다.

4. 푸프 스타일

푸프 스타일은 마리 앙투아네트의 전속 미용사인 레오나르가 처음 고안한 것으로 마리 앙투아네트 머리라고도 불린다. 과장된 허풍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푸프 스타일은 컬을 많이 말아서 머리전체를 웨이브로 부풀려 파우더를 뿌린 큰 머리 형태를 말한다.

이 푸프 스타일은 방석을 이용하여 머리채를 장식할 정도로 매우 독창적이었으며 그 당시 모든 여인들은 지금까지 아무도 하지 않은 독창적인 머리를 하고 싶어 했다. 당시 머리를 빗는 것은 단순히 머리를 정돈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형으로 만들어 낼 것인가 하는 디자인에 중점을 두었다. 머리의 높이를 더하기 위하여 가발, 말 털의 쿠션, 철사 받침 등의 패드를 머리 위에 올려놓고 그 위는 자기 머리카락을 뜨거운 인두로 말아 올려 패드를 덮었으며 머리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수많은 핀을 꽂고, 전분이 들어있는 포마드와 파우더를 발라 전체를 굳혔는데 그 높이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90cm까지 달하기도 하였다.

제 5 장 작품제작

제 1 절 포커페이스(Poker face)

1. 작품의도

포커페이스는 포커 용어로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무표정하게 있는 얼굴이다.

살면서 누구나 내 속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 강한 모습 뒤에 약한 모습을 감추고 있는 듯한 느낌을 로코코 양식의 풍탕주 헤어스타일과 꽃과 나비를 모티프로 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그림 5-1> 포커페이스 모티프 1



<그림 5-2> 포커페이스 모티프 2

2. 일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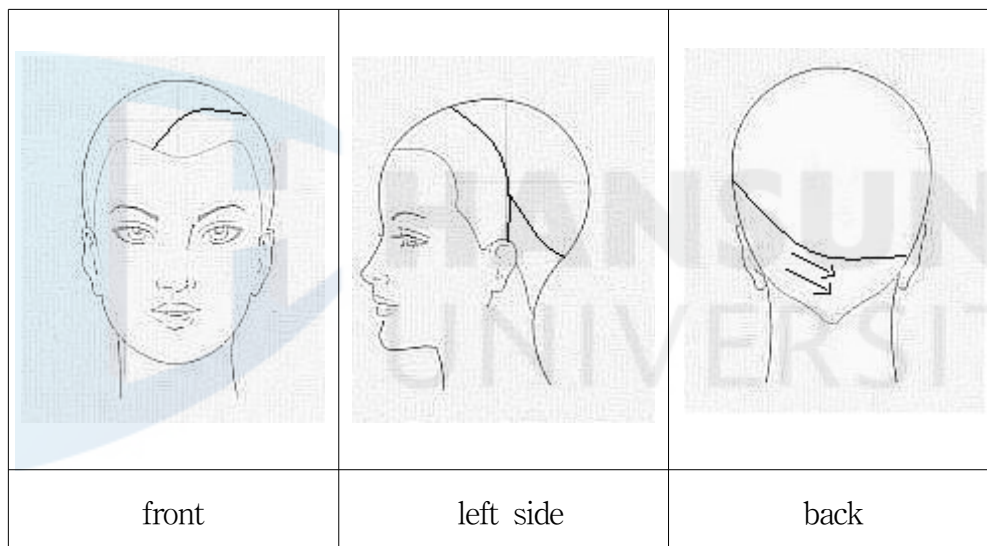


<그림 5-3> 포커페이스(Poker face) 일러스트

3. 제작과정

- 전체적으로 탈색을 한 후 W사 제품 10/68, 8/5, 8/11을 믹스 하여 워빙 기법으로 염색을 한다.
- 프론트와 왼쪽 프론트 사이드 부분을 웨이브 드라이를 넣는다.
- 왼쪽 백 사이드에서 쪽에서부터 오른쪽 네이프 포인트 쪽으로 빗어서 고정시킨다.
- 가운데 남아있는 머리들을 하나로 묶는다.
- 묶은 머리들을 등분을 나누어 판넬을 만들어 고정 시킨다.
- 네이프에 빗어서 고정시킨 머리를 등분을 나누어 루프를 만들고 남은 머리를 아이롱으로 웨이브를 잡아 고정시킨다.

[표 5-1] 포커페이스(Poker face) 블로킹



4. 완성작품



<그림 5-4> 포커페이스(Poker face) 완성작품 전, 후, 좌, 우

제 2 절 데메테르(Demeter)

1. 작품의도

곡식의 여신이라 불리는 데메테르는 풍요로운 대지처럼 너그러운 어머니다. 그녀는 굶주린 인간들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을 보고 씨를 뿌리고 밭을 가는 방법을 알려주어 땅에서 정착하도록 돕는다.

데메테르의 너그럽고 헌신적인 느낌을 로코코 양식의 풍파두르 헤어 스타일과 야자수 나무를 모티프로 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그림 5-5> 데메테르 모티프 1



<그림 5-6> 데메테르 모티프 2

2. 일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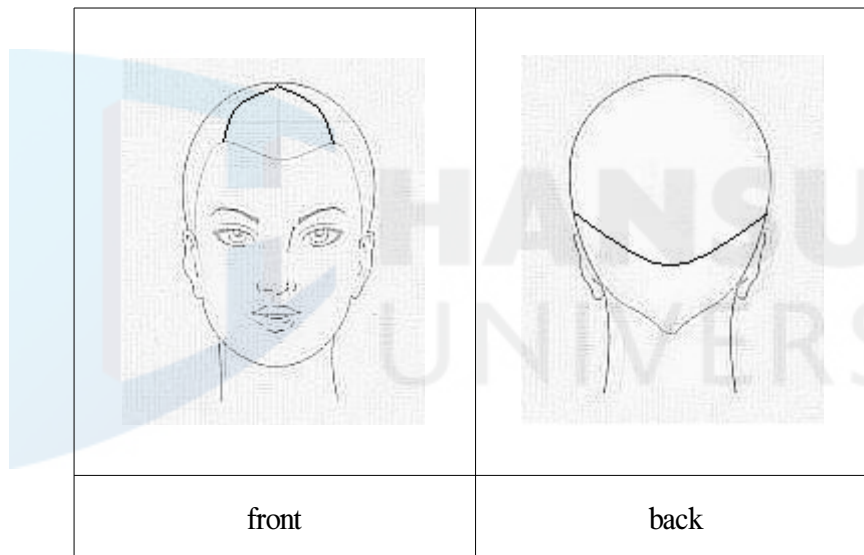


<그림 5-7> 데메테르(Demeter) 일러스트

3. 제작과정

- 전체적으로 탈색을 한 후 W사 제품 10/68, 8/5, 8/11을 믹스 하여 위빙 기법으로 염색을 한다.
- 프론트 부분에 드라이를 하여 볼륨을 주고 백코밍을 하여 볼륨을 살려 뒤로 넘긴다.
- 왼쪽 이어 백 포인트 부분에서부터 오른쪽 이어 백 포인트 까지 블로킹을 타둔다.
- 넘겨 놓은 앞머리와 가운데 남겨진 머리들을 하나로 묶은 후 머리 다발로 루프를 만든다.
- 네이프에 블로킹을 타놓은 머리들을 묶은 후 링처리 한다.

[표 5-2] 데메테르(Demeter) 블로킹



4. 완성작품



<그림 5-8> 데메테르(Demeter) 완성작품 전, 후, 좌, 우

제 3 절 팜프파탈(Femme fatale)

1. 작품의도

팜프파탈은 거부할 수 없는 묘한 매력과 아름다움을 이용해 남자들을 유혹한 뒤 파멸시키는 악녀를 가리키는 말로 요즘에는 굉장히 아름답고 매력있다는 의미로 풀이한다. 이런 치명적인 아름다운 느낌을 로코코 양식의 뒤편 헤어스타일과 과도를 모티프로 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그림 5-9> 팜프파탈 모티프 1



<그림 5-10> 팜프파탈 모티프 2

2. 일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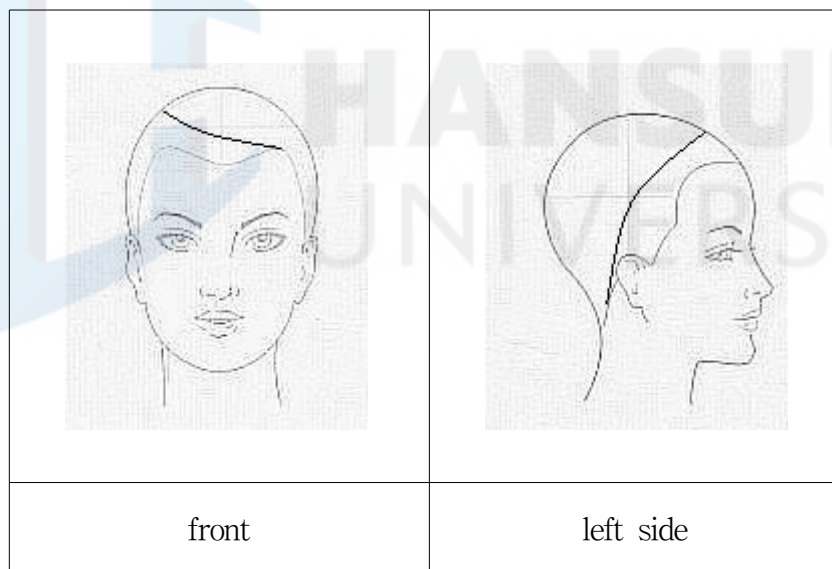


<그림 5-11> 팜프파탈(Femme fatale) 일러스트

3. 제작과정

- 전체적으로 탈색을 한 후 W사 제품 10/68, 8/5, 8/11을 믹스 하여 위빙 기법으로 염색을 한다.
- 전체적으로 매직작업으로 드라이를 한다.
- 오른쪽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에서 왼쪽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로 일자로 블로킹을 탄다.
- 프론트는 드라이로 볼륨을 넣고 스프레이로 고정하면서 손질 한다.
- 베이스 부분을 드라이로 C컬을 넣어 베이스를 고정 시킨다.
- 볼륨을 살린 앞머리를 이용하여 옆으로 파도처럼 넘어가는 웨이브를 표현하였고 웨이브마다 스프레이로 고정시키며 작업한다.
- 나머지 부분은 10mm아이롱을 이용하여 웨이브를 말은 후 백코밍 후 마무리 한다.

[표 5-3] 팜프파탈(Femme fatale) 블로킹



3. 완성작품



<그림 5-12> 팜므파탈(Femme fatale) 완성작품 전, 후, 좌, 우

제 4 절 여왕(Queen)

1. 작품의도

여왕은 성별이 여성인 군주를 뜻하기도 하지만 어떤 영역에서 중심적 위치에 있는 경우에도 여왕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누구나 주인공이기를 원하고 꿈꾼다. 자신의 삶속에서는 바로 자신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여왕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로코코 양식의 헤어스타일 중에서 가장 화려했던 푸프 스타일과 새장을 모티프로 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그림 5-13> 여왕 모티프 1



<그림 5-14> 여왕 모티프 2

2. 일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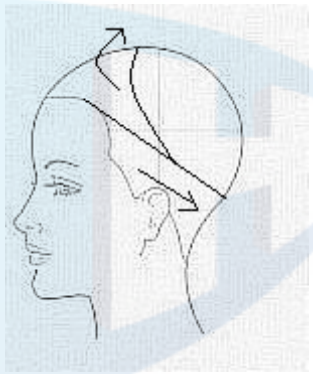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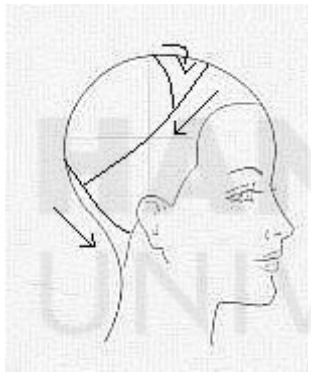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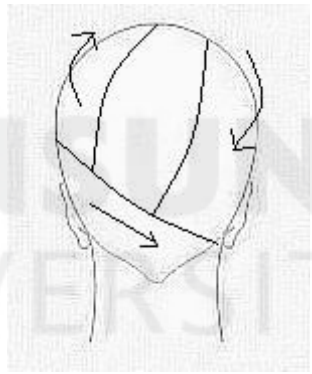


<그림 5-15> 여왕(Queen) 일러스트

3. 제작과정

- 전체적으로 탈색을 한 후 W사 제품 10/68, 8/5, 8/11을 믹스 하여 위빙 기법으로 염색을 한다.
- 왼쪽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에서 오른쪽 네이프 코너 포인트까지 바구니 땀기 한다.
- 왼쪽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에서 페이스 라인을 지나 오른쪽 네이프 코너 포인트까지 바구니 땀기 한다.
- 왼쪽 백 사이드 포인트에서 오른쪽 사이드 포인트까지 바구니 땀기 한다.
- 백 부분에 남은 머리는 네이프 오른쪽으로 묶어 웨이브를 넣은 다음 백 코밍 처리후 형태를 만들어서 마무리한다.

[표 5-4] 여왕(Queen) 블로킹

		
left side	right side	back

4. 완성작품



<그림 5-16> 여왕(Queen) 완성작품 전, 후, 좌, 우

제 6 장 결 론

헤어스타일은 새롭게 창작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유래된 것을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나 풍조에 어울리게 재창조하여 새로운 스타일로 탄생되는 것으로 치장을 중요시 하는 로코코 시대의 미용문화는 유행과 유행을 중요시 여기는 현대 여성들과 유사한 부분이 보였으며 가장 화려했던 헤어스타일이 유행한 로코코 시대는 헤어디자이너들에게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새로운 유행의 좋은 모티프가 된다고 생각하여 본 연구자는 중세유럽 중 가장 화려했던 로코코 시대를 선정하였다. 로코코 시대의 헤어스타일은 오늘날의 쇼 스타일의 전형으로 헤어쇼나 패션쇼 등의 특별한 행사에서 재현되어지고 있다. 이렇듯 18세기 로코코 시대의 헤어스타일은 한 시대만을 풍미한 미용문화가 아니며, 정교하고 기교적인 헤어스타일로 인한 전문 미용사의 출현은 헤어스타일을 헤어 패션으로 그 위치를 상승시켰으며, 그 자체를 독립적 문화로서 변화시켰고 예술적 가치를 부여하였다.

18세기 프랑스는 전쟁으로 피폐했던 루이 14세 시대와는 달리 평화롭고 풍족한 삶을 영위하게 되면서 외향에 치중하는 삶으로 전향시켰고, 화려한 예술장식과 곡선형태의 실내장식들이 사회전반에 반영됨으로써 헤어스타일에도 영향을 미쳐 이 시대의 특성인 과다한 장식과 로맨틱하고 감각적이며 자유롭고 부드러운 곡선이 헤어스타일에도 반영되었다. 로코코 시대의 헤어스타일은 전후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화려한 전성기를 누렸는데 헤어스타일의 유행을 주도한 것은 왕의 정부와 여왕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로코코 시대의 미용문화 중에서 가장 유행을 하였던 왕의 애첩과 왕비의 헤어스타일인 풍탕주, 풍파두르, 뒤바리, 마리 앙투아네트 스타일로 알려져 있는 푸프 스타일을 선정하여 4가지 스타일의 각각의 조형적 특징을 도출하고 이를 응용하여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창조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로코코 시대 헤어스타일을 조형적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4가지 스타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풍탕주 스타일은 리본이나 레이스로 머리를 묶고 앞에서 매듭을 지어 백색 마 또는 레이스에 풀을 뺏뺏이 먹여 반점은 부채모양으로 주름을

잡아 두세층의 탑처럼 세우고 철사로 틀을 만들어 이마에서 앞쪽으로 기울게 받친 후 리본, 다이아몬드, 진주, 깃털 등으로 장식하였다.

둘째, 풍과두르 스타일은 깔끔하고 단정한 스타일로서 머리카락을 부풀리지 않고 뒤로 빗어 넘겨 하나로 묶은 뒤 쪽지는 것처럼 안으로 말아 넣어 목덜미를 노출시킨 우아하고도 깔끔한 머리형으로 때로는 머리 위에 조화나 다이아몬드, 진주 등의 보석을 박은 리본이나 금이나 은으로 만든 머리핀, 레이스 캡, 깃털 등의 화려한 장식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셋째, 뒤바리 스타일은 정면의 머리를 이어 포인트에서 이어 포인트로 나누어 구분해서 느슨한 컬로 작은 패드나 쿠션을 주어 그 위에 흘러내리게끔 하고 후두부에는 여러 개의 컬을 만들어 리본으로 묶었다.

넷째, 푸프 스타일은 컬을 많이 말아서 머리전체를 웨이브로 부풀려 파우더를 뿌린 큰 머리 형태를 말하며 독창적인 것을 추구했다.

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대적인 모티프에 접목시켜 현대적인 업스타일로 작품을 제작하였다. 그 결과 창의적인 트렌드 개발의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예술 장르에서 그 시대의 스타일을 재현함에 있어 그 시대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분석하여 더욱 세밀하고 정확한 표현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현대적인 관점에서 재해석 하는 것은 미용문화 발전과 트렌드 창조에 기여할 것이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자료를 찾는데 있어서 헤어스타일의 이미지 자료가 아닌 인물들의 초상화가 대부분이어서 분석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으며, 18세기 프랑스의 로코코 시대에 대한 미용문화로 제한되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지금까지 많은 논문에서 로코코 미용문화에 대해 다뤄 왔었지만 시대적 배경을 토대로 미용문화를 연구한 논문은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본 연구자는 로코코 양식이 왜 생기게 되었는지에 대해 시대적 배경을 중점으로 로코코 양식을 연구하였으며 후속연구에서는 본 논문에서 다루지 못한 토탈 스타일에 중점을 두어 의상에 따른 헤어스타일의 변천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고애란(2008), 『서양 복식문화와 역사』, 파주 : 교문사
- 국립중앙박물관(2011), 『바로크 로코코 시대의 궁정문화』, 서울 : 국립중앙박물관
- 김미연, 이건수, 한용희(2012), 『나도 프랑스 문화와 통하고 싶다』, 대전 : 궁미디어
- 김미정(1998), 『바로크와 로코코』, 서울 : 시공사
- 김영옥, 안수경(2009), 『서양복식문화의 현대적 이해』, 서울 : 경춘사
- 김현일(1995), 『프랑스 문명사 下』, 서울 : 까치
- 김희보(2000), 『그림으로 읽는 세계사』, 서울 : 가람기획
- 곽형심, 권대순, 권태신, 김효정, 이수경, 장경옥, 허순득(2004), 『미용문화사』, 서울 : 청구문화사
- 노윤희(2010), 『극적인 역동성과 우아한 세련미』, 파주 : 마로니에북스
- 문명식(2011), 『유럽역사의 이해』, 서울 : 신아사
- 배수정, 현선희, 백정현, 오현아, 정경희, 김은실, 윤보연, 최지은, 천지영, 이경아(2008), 『현대패션과 서양 복식 문화사』, 파주 : 수학사
- 서현주, 이화진(2007), 『천년의 그림 여행』, 서울 : 예경
- 설혜심(2002), 『서양의 관상학』, 파주 : 한길사
- 신상옥(2006), 『서양복식사』, 서울 : 수학사
- 안상원(2008), 『어떻게 이해할까? 로코코』, 서울 : 미술문화
- 오광수(1996), 『이야기 서양미술 서양미술이야기』, 서울 : 정우사
- 유태순, 조기여, 이화순(2004), 『서양 화장 문화사』, 서울 : 동서교류
- 이복남(2009), 『프랑스 시의 이해』, 서울 : 엠애드
- 이은주(2008), 『프랑스 문학과 미술』, 서울 : 만남
- 이재원(2000), 『패션의 역사』, 서울 : 한길아트

이지은(2006), 『귀족의 은밀한 사생활』, 서울 : 지안
이희재(1998), 『슈테판의 시간여행 5』, 서울 : 끌리오
전선정, 안현경, 이귀영, 문윤경(2001), 『미용학과 미용문화사』, 서울 :
청구문화사
정인희(2005), 『서양 패션의 역사』, 서울 : 시공아트
정현진, 조진아, 장경옥, 김성남, 유우정, 박종순(2004), 『미용문화사』,
서울 : 광문각
정홍숙(1997), 『서양복식문화사』, 파주 : 교문사
조진애(2002), 『그림에서 표현된 근세 서양 복식』, 서울 : 경춘사
지현(1998), 『화장술의 역사』, 서울 : 시공사
최갑수(1998), 『그림으로 보는 프랑스의 역사』, 서울 : 까치글방
한순자, 서옥경, 이민주(2001), 『서양 복식 문화사』, 서울 : 예학사
허준(2004), 『그 패션의 향기, 프랑스 명화』, 고양 : 유림문화사
허준(2005), 『눈썹의 역사』, 서울 : 동서교류



2. 학위논문

- 고지혜(2010), 「17~18세기 동서양 헤어도(Hairdo) 조형미 비교연구」, 영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공희정(2007), 「로코코스타일을 응용한 파티장신구 연구」, 서울산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시아(2010), 「로코코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의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연주(2010), 「마리 앙투아네트 복식을 통해 본 로코코 복식의 조형성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2002), 「로코코시대 여성복식의 구성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정화(2009), 「로코코시대 여성복식을 이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부섭(2006), 「로코코시대 헤어스타일의 조형적 특성분석을 통한 업스타일 기법의 재현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화영(2005), 「로코코 양식을 응용한 직물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유리(2004), 「18세기 로코코 시대의 Hair Fashion의 경향」, 한남대학교 사회문화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현주(1994), 「로코코 복식을 응용한 현대 남성예복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은주(2010), 「컨셉트 미용실 도입을 위한 VMD전개 연구」, 동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계진(2010), 「근대 서양복식의 미적특성을 응용한 패션 디자인연구」, 한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유나(2007), 「18세기 로코코시대의 미용문화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지현(2006), 「로코코 시대의 장식요소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한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해영(2010), 「업스타일의 시대적 형태변화 분석을 통한 현대적 업스타일의
기법 적용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선정(1994), 「서구여성의 머리형태 변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정문(2006), 「로코코시대 여성복식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정미(2006), 「관능미를 주제로 한 도자조형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지정아(1999), 「18세기 로코코 시대의 복식, 헤어, 메이크업 경향에 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지혜(2003), 「로코코 시대 로브를 응용한 웨딩드레스 디자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원영(2011), 「로코코시대 인물화에 나타난 메이크업 특성과 색채에
관한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이현(2009), 「여성 드레스 슈즈 브랜드 기획 및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지선(2012), 「18세기 로코코 시대의 여성 미용문화 분석을 통한 미용작품
연구」, 성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BSTRACT

A Study on the Modern Up-Style Design Applying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Hair Styles in the Rococo Period

Lee, Na Kyung

Major in Hair Design

Dept. of Beauty Art &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s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looked into French Rococo style having affected to Europe culture of the 18th century, and aimed at reviving it into modern up-style after researching on women's beauty senses in the Rococo period, meaning of being contained in hair styles, historical background and sources in which hair fashions were settled down.

The beauty culture of the Rococo period that considered dressing-up importantly showed similar parts with modern women who made much of popularity and pretense than anything else, and researcher selected the most splendid Rococo period among Medieval Europe because the Rococo period seemed to provide a lot of ideas to hair designers and become motives of new fashions.

Regarding to research methods, the study investigated French sociocultural background in the 18th century, Rococo artistic forms through domestic and abroad literature, preceding theses, and Internet data etc., and analyzed after researching on characteristics shown at

architecture, paintings, fashion, and hair styles in the Rococo period. And then, this study selected Pouf style known as Fontange, Pompadour, DuBarry, Marie Antoinette that was populated most among the beauty culture of the Rococo period, and were hair styles of king's mistress and queen.

The study intensively researched France that was start of the Rococo style having caused large influences to all Europe countries in the 18th century, and decided research scope on the period of 74 years from death of Sun King Louis XIV (1715) to eve of the French Revolution.

The costume of this era, women had more interests in hair styles rather than cloths regardless of enjoying its peak of women's costume, and so hair styles were made artistically and fantastically, and also discharging of professional hairdressers was induced. And hair styles had been processed to more splendid, exaggerated and extended forms of various shapes by appearances of professional hairdressers.

The hair style of the 18th century to which various hair shapes and Rococo style had been appeared became a turning point as an independent culture that could not be seen from any previous ages as artistic work together with fine arts and architectures.

As the result of analyzing the hair style of Rococo period and reviving it with modern up-style techniques accordingly, it can be summarized same as the following.

First, the hair of Fontange style was tied with ribbons or laces, knotted from the front, stiffened with starch, ironed out like half-folded fan shapes, elected like 2-3 layers, framed with wires, supported and tilted forward from the forehead, and then decorated by ribbon, diamond, pearl, and feathers.

Second, Pompadour style was elegant and neat hair types that did not

blow up hairs, combed at the back, fastened to one, and put inside after rolling it like tress hair, and the style used splendid decorations such as hair pins made of gold or silver, lace cap, and feathers etc. together with jeweled ribbons like artificial flowers, diamond or pearl etc. on the head sometimes.

Thirdly, in DuBarry style, it divided and classified points following the front head, gave small pad or cushion by loose curl, and made it flowed down on it, and also occipital was tied with ribbon after making several curls.

Fourthly, Pouf style indicated a large hair form to which power was scattered after rolling up curls a lot and blowing up all hairs as waves, and it pursued a creative thing.

Based on above results, this study produced work with modern up-style by grafting it to the modernistic motive. Therefore,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creative trends could be known.

Same as looking into till now, more detailed and accurate expressions can be done by analyzing sociocultural background of the corresponding ear in reviving the ear's style at all artistic genres. In addition, researcher believes that this kind of study will become a good motive in creating new fashions.

【key words】 Rococo, The 18th century, Up-style, Fontange, Pompadour, DuBarry, Pouf